



사회 >> 3면

멈춰버린 그때 그 시절, 운동장도 체험학습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다

기획 >> 7면

어디까지 알고 있니? 신문사 A to Z

현장르포 >> 8면

대학 청년과 선거, 멀어진 사이를 붙일 방법은

제600호

2026년 6월 16일(화)

붉은 말의 질주와 함께... 2026 대동제 'Ready, Set, Go!' 마무리

지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우리 대학 대동제 'Ready, Set, Go!'가 개최됐다. 행사는 3일간 다양한 부스와 이벤트를 진행하며 축제 분위기를 달궜다. 올해 대동제는 학우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도 캠퍼스를 찾아 즐겁게 지냈다.

올해 역시 본교 AI/IT 연합 동아리 멋쟁이사자처럼과 CO:RE 총학생회가 협업해 대동제 사이트를 공개했다. 해당 페이지에선 △부스 상세 정보 보기 △분실물 확인 △축제 소식·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해 학우가 손쉽게 축제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QR 주문 서비스 'LIONORDER'를 제공했다. 부스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메뉴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할 가능하다. 메뉴 선택부터 주문 요청까지 한 번에 이뤄져 대기 없이 이

용할 수 있었다.

CO:RE 총학생회는 이번 대동제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아티스트 관련 릴스 촬영 후 총학생회 계정을 태그하는 이벤트인 'Young CO:RE Crew', 부스 4곳에 참여 후 응모함에 넣는 'Ready, Set, Draw'가 있었다. 무대 위에서 블라인드 쇼 개팅을 주선하는 '묻고 커플로 가 코너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우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히 Ready, Set, Draw는 닌텐도 스위치를 증정하는 등 파격적인 상품으로 눈길을 끌었다.

첫날은 공연 없이 부스 운영만 진행했다. 총학생회 부스에서 '도레미 파울로시조?' 이벤트, 빨간 바탕에 말이 그려져 있는 반다나 판매, Dress CO:RE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단과대, 각 학과,

자치기구, 축제기획단 등 다양한 콘셉트의 부스가 자리해 학우를 맞이했다.

이틀 차 16시 30분에는 개막식이 열렸다. 공연은 △실용무용전공 △실용음악학부(이하 실음)·한국무용전공 연합 △예술교육원 △실음·실용무용전공 연합 △유드림 △애니메이션 △위키스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 19시부터 다비치, LINGSHOT, 박재범 아티스트의 공연이 이어지며 축제는 학우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마지막 날엔 동아리 SDR, 그라미, 실음, 실음·실용무용전공 연합이 재학생 공연을 꾸몄다. 20시 30분부터 도드리, 엔플라잉, KISS OF LIFE 아티스트의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공연이 마무리되고, DJ LIME이 이끈 파티가 열리며 끝까지 즐길 수 있었다.



학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중앙운영위원회와 축제기획단의 안전 관리가 합쳐져 큰 사고 없이 2026 대동제가 마무리됐다.

[총학생회장 인터뷰]

- 구진모 (글비 불어 23)

Q. 이번 대동제 총평을 하자면.

A. 무엇보다 중대한 안전사고 없이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감사하고 뜻깊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신입생이 여러 전공 부스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평소 궁금했던 점을 직접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있던 전공 고민을 해소하고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한 격려로,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과 조언으로 함께해 주시는 학우 여러분이 계시기에 총학생회의 역할과 존재의 의미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관심과 참여가 지속된다면,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다 완성도 높은 행사와 운영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동제를 통해 확인한 다양한 의견과 한계를 토대로, 향후에는 더욱 정제되고 발전된 형태의 축제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화평 기자

(marksim@skuniv.ac.kr)

김호성 기자

(hosung@skuniv.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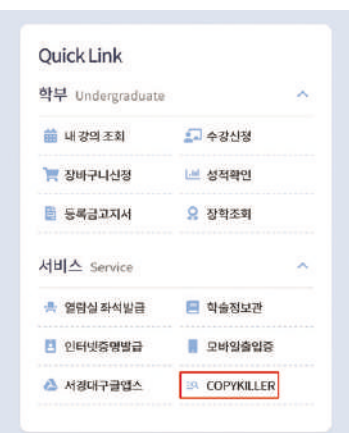
표절 걱정 없이 편하게 과제 하자 우리대학 카피킬러 도입

우리대학은 지난 4월 9일 표절 검사 시스템 '카피킬러'와 AI 작성물 판별 시스템 'GPT 킬러'를 도입했다. ChatGPT 등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춰 학문적 윤리를 확립하고 공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도입 목적은 △과제·보고서·논문 등의 표절 방지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부정행위 예방 및 공정성 확보 △연구 윤리 의식 고취 △학술 윤리 및 연구 신뢰성 강화 △AI 도구의 책임감 있는 사용 환경 조성이며 이용 대상은 학부 재학생 전원이다.

카피킬러의 주요 기능은 △국내외 논문 및 인터넷 자료 기반 유사도 검사 △문장 단위 표절 여부 분석 및 상세 리포트 제공 △인용 정보 누락·출처 표기 오류 등 검사 가능 △참고문헌 및 참고 자료 포함 한 상호간 검사 기능이 있다. GPT 킬러의 주요 기능은 생성형 AI 작성 여부 판별, AI 작성 가능성 분석 리포트 제공이다.

카피킬러 이용 방법은 서경포탈에 접속 후, 포탈 메인 상단 배너에서 카피킬러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또는 포탈 하단의 [Quick Link] - [서비스] - [카피킬러]에서 이용할 수 있다. GPT 킬러는 카피킬러에 들어간 후, 진행 화면 중 '문서 평가 설정'에서 'GPT 킬러' 선택 후 평가를 시작하면 이용할 수 있다.



연승은(미용1 경영 25) 학우는 이번 도입에 대해 "작년에 과제를 할 때 표절 방지를 위해 카피킬러를 사용하고 싶었지만, 검사 1회당 9,900원이라는 높은 가격 때문에 과제 하나하나에 쓰기엔 경제적 부담이 컸었다"며 "이제 우리 학교에도 카피킬러가 도입됐으니 과제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카피킬러와 GPT 킬러 이용에 대한 자세한 매뉴얼은 카피킬러 캠퍼스 사용 매뉴얼(<https://manual.muhyu.com/copykiller-campus-v2>)과 카피킬러 캠퍼스 이용 방법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iNTY_uW7jk&li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서연 수습기자

(kimsy050317@skuniv.ac.kr)

"무엇을 배우나요?" 2026 전공알림제 진행

무전공 신입생들이 전공 선택 및 교수와의 교류를 통해 전공 정보를 얻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2026 전공알림제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캠퍼스 소속감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사는 지난 4월 28일(화)부터 4월 30일(목), 11시부터 17시까지 한림관 3층 스콘 라운지에서 3일간 개최됐다. 미래융합학부1, 2 및 자유전공학부 신입생이 참여 대상이었다. 첫날인 28일에는 미래융합학부1 전공, 이튿날인 29일에는 모든 학부, 마지막인 30일에는 미래융합학

부2 전공 부스가 열렸다.

학우들이 전공 교수 및 선배와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주안점을 둔 행사는 전공별로 안내 부스를 마련해 상담을 진행하는 '스텝 프 투어' 형식으로 꾸며졌다. 부스에서 상담을 마친 후 3개 이상의 스텝프를 모은 학우들은 그림북, 카드지갑 등의 기념품과 함께 FYP 포인트 5점을 받을 수 있었다.

알림제에 참여한 민지선(미용1 26) 학우는 "전공알림제를 통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해당 전공의 선배

님이나 교수님께 직접 궁금했던 점이나 몰랐던 점들을 물어보면서 전공에 대해 알아갈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탐색세미나 수업에서도 교수님들이 직접 전공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서 전공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지만 직접 질문하기가 부끄러웠다"며 "그러나 전공알림제는 개별 상담이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어서 전공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됐던 것 같다"고도 답했다.

행사를 주최한 인성교양대학은 "첫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무전공 신

입생의 약 70%라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점이 가장 만족스럽고 뜻깊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신입생이 여러 전공 부스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평소 궁금했던 점을 직접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있던 전공 고민을 해소하고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반면,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일부 부스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진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상담 인력 보충, 운영 시간 확대에 대한 의견이 많았던 만큼, 향후 행사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해 더욱 쾌적하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개최임에도 뜨거운 관심으로 자리를 빛내주시는 무전공 신입생들과 후배들을 위해 기꺼이 귀한 시간을 내어준 전공 선배들 그리고 전공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인성교양대학은 이번 행사에서 얻은 소중한 의견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에는 상담 인력을 늘리는 등 더욱 내실 있게 운영을 보완할 예정이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사 령

6월 16일자로 아래 학우를 임합니다.

- ▶ 임 수습기자 손서연 (미용1 25)
- ▶ 임 수습기자 황세빈 (미용1 25)
- ▶ 임 수습기자 박희린 (미용1 26)



김치 나누고 안부 살피고... 본교 사회봉사단 '봄김장행사' 진행



▲ 출처: 서경대학교

지난 5월 9일, 본교 사회봉사지원센터와 김음종합사회복지관이 '2026 서경대학교 사회봉사단과 함

께하는 봄김장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저소득층 어르신 및 반찬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는 취

약계층 가정을 위해 마련됐다.

우리대학 학생 봉사자와 교직원, 지역 봉사단체 등 총 60여 명이 참여해 직접 김장을 담그고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참여자는 복지관 주차장에 모여 위생복으로 갈아입고 각자 업무를 분담받아 봉사를 시작했다. 15시로 예정돼 있던 행사는 많은 참여자에 힘입어 12시에 마무리됐다.

특히 우리대학 사회봉사단은 행사 당일 김장뿐만 아니라 지역 내 가정 80군데를 직접 방문해 김치를 전달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안부를 묻고 생활 상태를 살피며 말벗을 하는 등 정서적 돌봄도 함께 진행했다. 전달된 김치는 가정당 약 8kg 규모로 지원했다.

본교 사회봉사지원센터와 김음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013년부터 봄 김장 나눔 행사, 복날 삼계탕 나눔, 어버이날 행사, 겨울 김장 행사 등 다양하게 지역사회 관련 봉사를 지속해 오고 있다. 양 기관은 꾸준히 지역사회에 지원을 보내고 있고, 돌봄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음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봄철은 겨울 김장이 소진되는 시기와 맞물려 식생활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라며 "서경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와 함께하는 봄김장행사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민준(가명·미용125) 학우는 "직접 담근 김치를 전

달하며 지역 어르신들과 소통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교 사회봉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복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봉사 활동을 확대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 안에서 공동체 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봄 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심화명 기자
(marksim@skuniv.ac.kr)

이제 나도 서경인!

2026 우리대학 학잠 배부 완료



▲ 출처: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본교 제54대 총학생회 CO:RE에서 주관한 2026 서경대학교 학잠 배부(이하 학잠 배부)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총 5일간 이어졌다. 이번 학잠 배부는 청운관 7층 701호 총학생회실에서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된 학잠 사전 신청 주문 및 결제 완료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학잠 종류는 총 두 가지로 기본형

과 크롭형이 존재했다. 기본형의 가격은 4만 5,000원으로 4XL과 5XL는 각각 5,000원, 1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크롭형은 4만 4,000원의 가격으로 XS부터 3XL까지의 사이즈를 고를 수 있다.

학잠 수령 대상자인 학생들은 본인들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수령 기간 내에 총학생회실을 방문해 자신들의 학잠을 받아갔다.

학잠 배부에 참여한 A(미용126) 학우는 학잠 배부 후기에 관한 질문에 "배부 날짜가 좀 늦은 점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학잠이 생각보다 예뻐서 잘 입고 다녔다"며 작은 아쉬움과 만족감을 전했다.

또 "디자인이 이쁘서 충분히 살 가치가 있고 추운 아침이나 밤에 입고 다니기 좋다"며 학잠 배부를 맡길이는 학우들에게 다음 기회에 학잠 구매를 추천했다.

유승윤 기자
(organiceggtry@skuniv.ac.kr)

"나를 알아야 진로도 보인다"... 대플, '2 code 진로설계워크샵' 개최

서경대학교 진로취업처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이하 대플)가 지난 3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6학년도 1학기 'E-Disc x 에니어그램' 검사와 함께 하는 2 code 진로설계 워크샵(이하 진로설계워크샵)을 개최했다.

진로설계워크샵은 대플 주관하에 매 학기 초 개설되고 있다. 이번 학기 프로그램의 경우 위 기간 동안 주 1회씩 총 6회 진행됐으며, 매회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유담관 9층 Career Lab에서 열렸다. 워크샵 참석을 원하는 학생은 서경 포탈 내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 탭 또는 구글 폼을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입생을 포함한 2·3·4학년 재학생 및 지역 청년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진로설계워크샵은 성격 행동 유형 검사인 E-Disc(Extended Disc)와 심리 유형 검사인 에니어그램(Enneagram)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행동 및 심리 유형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Disc 검사는 사람의 행동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해 개인의 성향과 행동 특성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반면 에니어그램은 인간의 성격이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등기 중심 성격 이론으로, 핵심 동기와 내면의 두려움 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날개 유형과 분열·통합 방향 등을 통해 자기 이해 요소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참가 학생들은 사전에 전달된 링크를 통해 두 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성격 및 행동 유형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플 측은 학생 개인 검사 결과에 부

합하는 직무 환경과 직업을 소개했다. 또, 워크시트를 통해 직업 가치관과 진로 목표 등을 정리하고 공

유해 보는 시간을 가지며 워크샵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 7일 2회차 워크샵 진행을 맡은 진로취업처 박소영 컨설턴트는 "전공이 결정되지 않은 미래융합학부와 자율전공학부 저학년 학생들뿐 아니라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모두에게 열려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커리어 피팅 데이 등 추후 진행되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도 함께 참여한다면 더욱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청문단, '13·14기 이취임식' 열려... 사회 공헌 활동 이어간다



▲ 출처: 청문단

우리대학 청년문화콘텐츠기획단(YACCW, 이하 청문단)이 지난 4월 29일 성북구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13·14기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문단 관계자와 단원들이 참석해 지난 1기 수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새 기수의 출범을 알렸다.

이취임식은 △개회사 △취임사 △인사 △청문단 연혁 소개 △13기 활동 성과 및 14기 운영 계획 발표 △임원진 표창 수여 △폐회사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청문단은 콘텐츠를 통한 사회 공헌으로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3월 창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 연구 △콘텐츠 개발 △지역문화 스토리텔링 △지자체·기업 협업 등이 있다.

청문단은 지난해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함께 법정기금 자원봉사 활동 지원, 제18회 전국자원봉사자 캠페인 현장 지원, 전국 자원봉사자의 날 인터뷰 영상 제작 등을 맡았다. 또한 서울북부여성발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강산이 3번 변해도, 학문의 열정은 식지 않는다

26년 8월 말 본교를 퇴직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표창 추천 대상

자에 △김환건 △반성택 △유규열 교수가 육조근정훈장에, 이즈미 지하루

교수가 근정포장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상훈제도는 상위에 '훈장'부터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순으로 규정한다. 이 중 육조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은 공무원이나 교직원으로서 공적이 뚜렷하고, 30년간 근속한 자에게 심사를 거쳐 수여하는 포상이다.

기자는 33년간 본교에서 재직하던 문화콘텐츠학과 반성택 교수에게 훈장 추천 선정과 퇴직 소감을 물었다.

Q. 전공·교양 과목의 내실화와 우수한 연구 성과로 육조근정훈장 추천 명단에 선정되었는데 감회가 어떤지.

A.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감회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래도 지나고 보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인정이라

보이기에 성취감은 조금 느낍니다.

Q. 그동안 많은 제자를 배출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제자나 보람찼던 순간은.

A. 코로나 시기에 철원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카페에 가면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했습니다. 이를 보고 말을 걸어 온 젊은이가 떠오릅니다. 몇 해 전 교양 수업에서 만난 학생이었습니다. 유난히 하얀 얼굴의 남학생이었다는 것을 조금 지나서 떠올렸습니다. 말을 걸어오는 수강생이 있다는 것에 고맙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학생을 만났습니다. 이들 대부분 좋지 않고, 눈을 마주쳐줬던 시간이 뜻깊게 여겨집니다.

Q. 퇴직 이후 무엇을 할 예정인지.

A. 작년부터 가을 주변 사람들이 학교를 떠난 뒤 무얼 할 것인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몇 달간은 작가의 삶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철학교수로 지내며 '너 자신을 알라'고 외치던 소크라테스가 의심이 많이 드는 인물로 여겨졌기에 그와 관련된 단행본을 쓰고 싶고, 현대철학 전공자로서 관련한 문헌을 여러 권 출판하고 싶습니다. 재직 시절 많은 강의와 논문 쓰기로 미뤄던 일들 하고 싶습니다.

반 교수는 새로운 출발에 기대를 말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문제, 교육 개혁 등 대학 발전을 고민하는 현장에 함께 하고자 한다며 식지 않은 학문의 열정을 보였다.

이요한 수습기자
(yohan2006lee@skuniv.ac.kr)

훈장/수훈기간		공적요지
육조 근정훈장	35년 09월 21일	지방자치의 발전과 연구를 통하여 국가적 중요성 있는 연구에 대한 성과를 높임으로 후진 양성에 기여하고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함
육조 근정훈장	34년 05월 09일	많은 연구성과를 산출함과 동시에 후학양성과 학문발전에 헌신하여 기술발전의 발전하고 공적기공을 위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교육 발전에도 기여함
육조 근정훈장	33년 08월 26일	재직기간 동안 전공 및 교양과목의 내실화와 관련하여 교육발전에 힘쓰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연문학 진흥과 나아가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
근정포장	31년 05월 29일	재직기간 동안 여러번에 탁월한 공적과 학문발전에 힘쓰고, 후학양성과 학문발전에 헌신하고, 내외적인 활동을 통해 학과위성 제고에 기여함

▲ 출처: 훈장(문화포털), 명부(서경대 홈페이지)

한 눈에 보는 이슈

<h3>정치</h3> <p>헝가리 '오르반 16년 철권통치' 종막... 유럽 정세 지각변동 예고</p>	<h3>경제</h3> <p>"짜고 치는 판"에 소비자만 피눈물... 전방위로 퍼진 연쇄 담합 카르텔</p>	<h3>사회</h3> <p>멈춰버린 그때 그 시절, 운동장도 체험학습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다</p>	<h3>문화</h3> <p>아르테미스 2호의 성공적인 비행, NASA의 종착지는 어디인가</p>	<h3>연예</h3> <p>'21세기 대군부인' 역사왜곡 논란... 국민청원 힘입어 폐기되나</p>	<h3>스포츠</h3> <p>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시 포상금 1억원... 역대 최대 수준</p>
---	---	--	---	---	--

※ 자세한 내용은 사회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는 이슈

헝가리 '오르반 16년 철권통치' 종막... 유럽 정세 지각변동 예고



▲ 출처 : 연합뉴스

지난 4월 12일 치러진 헝가리 총선에서 유럽의 트럼프라 불리던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이 참패하며 16년 만에 극적인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이어 5월 9일, 폴풍의 주역인 야당 티서당의 머저르 페테르가 신임 총리로 공식 취임하며 헝가리 정계는 물론 유럽 연합(이하 EU) 전체에 새로운 정치적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티서당은 전체 의석 199석 중 개헌 요건인 3분의 2를 넘어서는 138석을 확보하는 거대한 압승을 거뒀다. 반면 16년간 장기 집권했던 여당 피데스당은 55

석으로 크게 급감하며 권좌에서 밀려났다.

정치 전문가들은 오르반 정권이 당한 뼈아픈 패배 배경으로 △경제 악화 △사법부 장악 △EU 기금의 방만한 운용 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과 반감이 한계에 달한 점을 지목했다. 즉 이번 티서당의 승리는 현재 헝가리 정계에 팽배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약 80%에 육박하는 역대급 투표율로 응답한 유권자가 신생 야당인 티서당에 표를 몰아준 결과라고 볼 수 있다(참고: 연합뉴스).

이러한 정권 교체는 단순히 헝가리 내부의 변화를 넘어 EU 전체 외교 기조에 상당한 지각 변동을 일으킬 전망이다. 그동안 오르반 전 정부는 노골적인 친러시아 행보를 고수하며 유럽 내에서 이단아 취급을 받아왔다.

그러나 머저르 신임 총리가 이끄는 티서당은 중도 우파 성향의 친 EU 노선을 표방한다. 또 그는 헝가리와 EU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취임식 당일 헝가리 의회 외벽에 12년 만에 EU 깃발이 다시 휘날린 것은 친러 성향이었던 과거

정권과의 확실한 결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참고: 연합뉴스).

헝가리의 굵직한 정치적 변화는 현지에 대거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헝가리는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과 자동차 부품사가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핵심 생산 기지다.

티서당의 압승을 계기로 헝가리의 법치주의와 전반적인 규제 환경이 EU 표준에 발맞춰 대폭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적 기조 변화가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정부와 산업계가 예의주시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대학생 A 씨는 "장기 집권의 폐해를 단호하게 끊어낸 헝가리 국민의 선택이 매우 인상 깊다"며 "새로운 정권이 헝가리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분열했던 유럽의 연대를 다시금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응원한다"고 전했다.

16년 만에 새 뜻을 올린 헝가리의 새 정부가 대내외적 과제를 딛고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이룰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승윤 기자
(organicggfry@skuniv.ac.kr)

"짜고 치는 판"에 소비자만 피눈물... 전방위로 퍼진 연쇄 담합 카르텔

한솔제지 등 제지 6사의 3년간의 담합이 밝혀진 가운데, 뒤이어 CJ제일제당 등 제분 7사의 6년, 대상 등 전분당 제조업체들의 8년간 담합이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의 약 95%를 차지하는 6개 제지사(△한솔제지 △무림P&P △무림페이퍼 △무림SP △한국제지 △홍원제지)가 약 4년간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최소 6회 이상 모여 총 7차례에 걸쳐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기준가격을 인상했다. 의심을 피하고자 가격 인상 통보 순서를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져 정하고, 공중전화나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그 결과 담합 초기 톤당 약 84만 1,000원이었던 인쇄용지 가격은 종료 시점 약 143만 9,000원까지 무려 71% 폭등했다.

식품업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7개 제분사(△대원제분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림)의 약 6년에 걸친 담합 행위에 대해 독자적 가격결정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10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2024년 매출액 기준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87.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 사업자로, 2006년 이미 한차례 제재를 받고도 재차 담합을 실行了. 심지어 정부 물가 안정 보조금을 받고도 담합을 지속하는 등 공정위는 그 위법 정도가 중대하다고 평가해 담



▲ 출처 : 연합뉴스

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기간 중인 2022년 9월경에는 밀가루 판매가격이 담합 시작 당시인 2019년 12월에 비해 제분사별로 최소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또한, 원가 상승기에는 이들의 밀가루 판매가격이 최대 수준으로 빠르게 인상됐으나 원가 하락기에는 최소 수준으로 느리게 인하한 사실이 밝혀졌다.

담합 카르텔은 비단 생필품 시장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국내 전력 기자재 시장의 90%를 점유한 대기업들도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변전소 핵심 설비(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에서 7년간 낙찰자와 가격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로 조사를 피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총 3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기금 정도 등을 고려해 6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신축 주거시설의 가구 입찰 과정에서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국내 주요 가구사들이 2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담합을 벌인 혐의로 전·현직 임직원들의 유죄가 선고됐다. 이러한 상황에 국민과 입주민들은 고스란히 전기요금 인상 압박과 주거 비용 부담을 감당해야 했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0조'를 통해 가격 결정 및 유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담합 기업에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20%에 달하는 과징금과 함께 형사 고발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공정위는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과 담합 주도 임원해임 명령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대기업들의 고질적인 짬짜미 관행을 끊어낼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멈춰버린 그때 그 시절, 운동장도 체험학습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다



▲ 출처 : 매일경제

전국 312곳 초등학교에서 점심 시간 축구 등 스포츠활동이 제한되는 추세다. 더불어, 학창 시절의 대표적인 추억으로 꼽히는 현장체험 학습과 운동회도 축소 및 변형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안전사고 예방'과 '경쟁으로 인한 상처 최소화'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초등학생의 경우, 스포츠활동 중 발생하는 충돌 과정에서 다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생이 다칠 경우, 담당 교사에게 학부모

민원이 집중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승리의 기쁨과 응원 열기로 가득찬 운동회 풍경도 많이 바뀌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자존감 저하 등을 우려해 승패를 가리지 않거나 공동 우승 형태로 운영하는 학교도 증가하는 추세다. 일부 학교에서는 소음 관련 민원으로 운동회 자체를 축소 운영하거나 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외부로 나가는 현장체험

학습은 담당 교사에게 큰 운영 부담을 안긴다. 학생에게 사고가 발생한다면 교사가 법적 책임에 휘말릴 우려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의 교권 약화와 부모의 무분별한 민원 증가로 인해 발생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해당 사안을 두고 정부와 교사 노조의 의견은 대립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초등학교 운동장 폐쇄 및 현장체험학습 금지 실행을 언급했

다. 이 대통령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느냐", "학생들에게 그 좋은 기회를 빼앗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표현과 함께 대체 방안을 반드시 찾을 것을 주문했다.

반면, 교사 노조는 지난 4월 29일과 30일, 청와대와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국가 책임 체계로 대응해야 한다"며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환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겉으로는 안전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원 문제에 가깝다"며 교사가 모든 것을 뒤집어쓰는 사회적 구조를 지적했다(참고: 주간조선).

본지 인터뷰에 응한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규진(가명) 씨는 "과거 교사는 권한이 많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직업이었다. 하지만 교원은 나날이 추락하고 있다. 교대 입결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약성 민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것 같다"며 교권 실태를 토로했다.

이어 "아이들이 부모의 울타리에 갇혀 있다면 교사가 법적 책임에 휘말릴 우려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의 교권 약화와 부모의 무분별한 민원 증가로 인해 발생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해당 사안을 두고 정부와 교사 노조의 의견은 대립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초등학교 운동장 폐쇄 및 현장체험학습 금지 실행을 언급했

김호성 기자
(hosung@skuniv.ac.kr)

아르테미스 2호의 성공적인 비행, NASA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지난 4월 1일(현지시간) 54년 만에 달을 향해 떠났던 미국의 유인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10일간의 달 탐사를 마치고 무사히 지구로 돌아왔다. 이번 아르테미스 2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유인 캡슐 '오리온'의 생명 유지 장치와 통신 시스템이 심우주 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반도체 동작 확인 등 장기 체류에 필요한 기술 검증 △비상 대응 절차 △우주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우주복 성능 검증이 이루어졌다.

아르테미스 2호는 40만 6,770km를 비행하며 역대 최장 거리 유인 비행 기록이었던 1970년 아폴로 13호의 약 40만 171km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번 비행으로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달의 뒤쪽 표면을 인류 최초로 관찰하는 성과를 거뒀다. 달 뒷면은 그동안 2019년 중국이 보낸 무인 탐사선 '창어 4호'가 촬영한 사진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비행을 통해 인류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달 뒷면을 직접 두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인류의 활동 영역이 지구를 넘어 심우주로 확장됐음을 보여준다.

이번 아르테미스 2호의 성공은 향후 진행될 아르테미스 3호, 4호 계획과 최종 목표인 '달 기지 건설'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NASA는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아르테미스 3호 SLS 로켓의 핵심을 공개했다. 아르테미스 3호는 오리온 우주선과 월면 착륙선의 도킹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르테미스 3호의 도킹이 성공하면 이듬해 아르테미스 4호를 통



▲ 출처 : BBC

해 달 남극 부근에 우주비행사 2명을 착륙시킬 예정이다. 이때 인류가 달 표면에 깃발을 꽂고 발자국을 남기는 모습은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전망이다.

NASA는 200억 달러를 투입해 향후 10년 안에 달 남극에 초기 거주 기반을 구축하고, 유인 거주 체제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소형 로버 착륙선 등의 다양한 탐사 장비를 활용해 데이터를 축적한 후, 우주비행사 4명 체류할 수 있는 기지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NASA는 달을 인류가 언제 방문할 수 있는 '새로운 영토'로 확장할 계획이다. NASA는 달 기지 건설에서 경험한 기술을 토대로 화성 탐사까지 바라보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2032년까지 누리호를 매년 발사하며 국내의 위성 발사 수요

를 발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2년 독자 개발한 발사체 누리호를 통해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췄다. 지난 3월, 착륙선 임무의 후보지가 30여 개로 압축됐고 올해 말에 후보 지역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또한 2045년 달 경제 기지 건축을 목표로 하는 장기 로드맵을 가동 중이다. 이는 달의 미래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우주 경제 영토를 확장하려는 전략적 행보이다.

김서연 수습기자
(kimsy050317@skuniv.ac.kr)

‘서경대신문’ 창간 71주년을 기념하며



서경대학교 총장 김범준

서경대신문 창간 71주년과 지령 6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랜 시간 대학의 역사와 함께 호흡하며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진실을 기록해 온 서경대신문사 주간 교수님과 역대 기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누비며 펜을 들고 있는 학생기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1955년 창간된 서경대신문은 단순한 학내 소식지가 아니라, 우리 대학 공동체의 생각과 가치,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기록의 장이었습니다. 대학의 성장과 변화, 학생들의 고민과 도전, 그리고 우리 사회를 향한 젊은 지성의 시선을 꾸준히 담아내며 서경의 역사를 함께 써 내려왔습니다. 여러 차례 어려움과 변화의 순간 속에서도 언론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던 서경대신문의 발자취는 곧 우리 대학의 자부심이자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이 일상이 된 거대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실은 쉽게 흔들리고, 속도는 빨라졌지만 깊이 있는 성찰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일수록 대학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학신문은 단순히 소식을 전달하는 매체를 넘어, 공동체의 방향을 고민하고 시대의 질문을 던지는 '지성의 플랫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래 사회는 단순한 정보 전달 능력보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분별하는 힘, 그리고 사람과 사회를 이해하는 통찰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경대신문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더욱 신뢰받는 언론으로 성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빠른 뉴스보다 정확한 사실을, 자극적인 이야기보다 공동체에 필요한 목소리를 담아내며, 대학 사회의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한 이제 대학 언론은 종이신문의 경계를 넘어 디지털과 멀티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야 합니다. 영상과 데이터, SNS와 AI 기반 플랫폼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언론의 본질인 공정성과 책임, 현장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기술은 변화도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진실 어린 기록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경대학교 역시 '실용과 혁신'을 바탕으로 미래

형 교육환경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산업과 사회 변화에 발맞춘 교육혁신, 산학협력 확대, 글로벌 역량 강화, 학생 중심 교육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이 미래 경쟁력이 되는 대학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서경대신문은 대학과 학생, 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대학의 발전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비판자의 역할로, 때로는 구성원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동반자로 함께해 주길 기대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진심입니다. 진실을 향한 치열한 고민, 현장을 직접 뛰며 기록하는 성실함, 그리고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책임감이야말로 대학 언론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가치일 것입니다. 서경대신문이 앞으로도 시대를 읽는 통찰과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 공동체에 희망과 울림을 전하는 언론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신문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서경대신문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모든 기자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에 아낌없는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제54대 CO:RE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구진모



‘함께 걷는 오늘이 다시 뿔 고대의 힘이 되도록’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제54대 총학생회 CO:RE 총학생회장,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불어전공 23학번 구진모입니다. 우선,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총학생회장으로서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71주년에 하나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음에 영광스럽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가 빠르게 생성되고 소비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넘쳐나는 환경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신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실에 기반한 기록과 깊이 있는 시선을 통해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서경대학교 신문사는 지난 71년 동안 교내의 다양한 이야기와 시대의 흐름을 꾸준히 기록하며 학생 사회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단순한 기사를 넘어 우리 대학의 역사이자 구성원 모두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총학생회 역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신문사는 학생 사회를 함께 고민하며 이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 생각합니다. 기록된 목소리는 더 큰 공감과 변화를 만들어 내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서경대학교 신문사가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진실을 전달하며 학생들과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54대 CO:RE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김태휘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제54대 총학생회 CO:RE 부총학생회장 군사학과 23학번 김태휘입니다.

먼저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간 71주년을 맞아 축사를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신문사 편집장님, 부편집장님 그리고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슬로건인 ‘발로 뛰는 지성 언론’처럼, 항상 학내 곳곳을 누비며 생생한 소식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님들의 열정과 사명감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신문보다 영상 미디어나 짧은 콘텐츠를 더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경대신문은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며 꾸준히 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대나무와 같이 큰 인상을 받았으며, 언론으로서의 책임감과 진정성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서경대학교 신문사는 언제나 중립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전달하며 학생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학내의 다양한 소식과 현장을 누구보다 앞장서 전달하며 사명감을 다하는 신문사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응원을 보냅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71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학우들의 곁에서 함께 걸어가며 힘이 되어주는 신문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대 여정 사회과학대 정학생회장 유아영



‘여러 목소리를 위해 정진하다’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제28대 여정 사회과학대 정학생회장 군사학과 유아영입니다.

먼저,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학교의 신문사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대학의 역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록하고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발자취를 돌아보면 존경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캠퍼스 곳곳을 누비며 학우분들의 권익을 위해 기사를 작성하던 기자분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 서경대학교의 지성과 민주주의가 지금처럼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도 모든 정보를 가볍게 소비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이 발로 뛰며 취재하는 기자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서경대신문을 접할 때마다, 신문 한 장에 담긴 사실을 확인하고 생생한 학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흘렸을 여러분의 땀방울을 느껴며 깊은 경의를 표하곤 합니다. 서경대신문은 단순한 정보 전달자를 넘어 학생 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늘 우리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서경대학교의 신문사가 우리 대학의 가장 공정하고 신뢰받는 눈과 귀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저를 비롯한 사회과학대 학생회 또한 여러분이 기록해 나가는 우리 학교의 오늘이 더욱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도록, 학우들을 위한 발걸음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간 71주년을 축하하며,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5대 연화무적 이공대 정학생회장 손진석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제35대 연화무적이공대 정학생회장, 컴퓨터공학과 22학번 손진석입니다.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신문사의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경대학교에 입학한 후 신문사의 꾸준한 열정과 책임감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꾸준히 같은 자리에서 학생들의 알 권리를 위해 학교 인파를 뛰어다니시는 서경대 신문사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학우들이 학교와 조금 더 소통하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 조금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사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우리 학교의 모습들을 모든 학우와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었으며 더 나은 서경대학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신문사 분들의 기록 하나 하나가 서경대학교의 자랑이자 소중한 자산이고 역사에 남을 줄의 글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는 단과대 회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조금 더 다양한 학교생활을 하며 신문사의 활약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신문사 여러분들이 학우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학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 주셨고 그 덕분에 학교생활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서경대 신문사가 흔들림 없이 지성과 책임을 갖춘 언론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라며, 우리 대학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는 든든한 등반이 되어주시길 기원합니다. 서경대학교 신문사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제28대 이음 통합예술대 정학생회장 장해승



안녕하십니까, ‘이음으로 예술을 잇다’ 제28대 이음 통합예술대 정학생회장 메이크업디자인학과 23학번 장해승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진실을 기록하고 학우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온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문은 단순히 소식을 전달하는 매체를 넘어, 학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연결하고 서로의 생각을 이어주는 소통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술 분야는 각자의 개성과 감정, 그리고 다양한 시선이 중요한 만큼, 학우들의 고민과 열정, 창작의 순간들을 담아내는 신문사의 역할이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언제나 학우들의 가까운 곳에서 캠퍼스의 변화와 흐름을 기록해 주시고, 때로는 공감으로, 때로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대학 사회를 비추는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꾸준히 한 걸음씩 쌓아 올린 기록들은 앞으로도 우리 대학의 소중한 역사로 남을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서경대학교 신문사가 다양한 이야기와 새로운 시각을 통해 학우들에게 영감과 울림을 전하며, 모두를 이어주는 매체로 오래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신문사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대 모아 융합대 정학생회장 김서영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융합대학 정학생회장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 23학번 김서영입니다. 먼저, 서경대신문 창간 71주년과 뜻 깊은 6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경대신문은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우리 대학의 역사를 함께 기록해 왔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소통의 방식이 달라지는 가운데에서도 대학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이어온 노력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600호라는 의미 있는 발간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수많은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신문사 구성원들의 책임감과 열정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사회에서 언론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고민과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시각을 연결하며 공동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서경대신문 역시 학우들의 일상과 변화, 학교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며 우리 모두를 이어주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경대신문이 학내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담아내며 더 넓은 공감과 건강한 소통을 이끌어가는 대학 언론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신문 창간 71주년과 6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더욱 빛나는 역사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대 새움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 유지섭



“새로움으로 여는, 오늘”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제1대 새움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 미래융합학부1 경영계열 25학번 유지섭입니다.

먼저 우리 대학의 역사와 함께하며 학내 소식과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전해 온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7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경대학교 신문사는 단순한 학내 언론을 넘어 대학 공동체를 연결하는 소통의 창이자 시대를 기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교내 주요 소식과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하며 학생들이 학교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때로는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학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며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학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정확한 정보 전달과 건강한 비판,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소통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융합대학 1 학생회 또한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대학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 신문사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더 빛나는 발걸음과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대 영원 미래융합대학2 정학생회장 정재윤



“함께 꿈꾸는 미래, 함께 이어갈 영원”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제1대 영원 미래융합대학2 정학생회장 정재윤입니다.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대학 언론의 역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학우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대학 사회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경대신문은 지난 71년 동안 학내의 다양한 이야기와 구성원들의 생각을 기록하며 우리 대학사회를 이어주는 소중한 창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때로는 학우들의 관점에서 공감과 위로의 말을 전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문제를 짚어내며 건강한 대학 문화를 만들어 온 서경대신문 기자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71주년이라는 뜻깊은 순간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오랜 시간 씬 없이 이어져 온 열정과 책임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기록하고 진실을 전달하며 학내 구성원들과 함께 호흡해 온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경대신문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학생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담아내는 언론으로 더욱 빛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서경대신문의 앞날에 늘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2대 청연 총동아리연합회 정학생회장 황재운



“동아리에 길을 잇고, 푸른 청춘에 빛을 더하다.”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제42대 청연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물류시스템공학과 23학번 황재운입니다. 먼저,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71주년을 총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학내 소식과 시대의 흐름을 가까이에서 전해주던 신문사의 뜻깊은 순간에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지만, 무엇이 진실이고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인지를 고민하며 기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신문사는 늘 학우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문제들을 비추는 거울이 돼 주었습니다.

지난 2년간 총동아리연합회 활동을 하며 여러 교내 행사를 함께했던 저는, 학생기자분들께서 직접 현장으로 향해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기사에 담아내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스쳐 지나갈 하루를, 누군가는 잊어버릴 순간을 신문사는 기록으로 남겨 우리 대학의 역사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신문사가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진실을 기록하고 학생사회를 밝히려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경대학교 신문사가 시대를 비추는 빛이자 학생사회에 든든한 목소리로 오래도록 함께하길 바랍니다. 신문사의 앞날에 더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경대신문 창간 71주년, 그리고 6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영균 (서경대신문 주간)



서경대신문 창간 71주년, 그리고 600호 특집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55년 학생 신문으로 창간한 우리 신문은 대학의 눈부신 발전과 발맞추어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변화와 도약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해 왔으며, 한편으로 대학 언론이라는 본연의 가치 역시 끈기있게 지켜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71년이 지나 마주한 이 600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 신문은 70여 년이 넘는 기나긴 시간 동안 시대와 사회의 흐름은 물론, 대학의 역사를 기록하며 학내 여론의 광장을 구축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600호라는 숫자는 기나긴 시간 동안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온 우리 신문의 눈부신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힘써주신 여러 선배 주간님, 편집장님, 기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 하지만 창간 71주년, 그리고 오늘 600호 발행은 아직 우리 신문의 기나긴 여정 중 중간 경유지에 해당합니다. 향후에도 우리 신문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창간 100주년을 넘어, 수 천호 발행에 이르기

까지 서경대학교와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서경대신문이 앞으로 학내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균형을 유지하여 올바른 소통과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 자리하기를 응원합니다.

편집장 심화평



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신문 제70대 편집장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 25학번 심화평입니다. 서경대신문의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간기념호와 동시에 600호라는 기념비적인 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편집장으로 맞이하니 감개무량합니다.

대학 언론의 위기 속에서도 저희는 굳건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작게나마 서경대신문을 알리고, 디지털 세상에 서경대신문을 널리 알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곧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 머릿속을 괴롭히는 건 '불안감'입니다. 전통적인 대가 끊겨 소망수로 세워진 저는 급한 불만 끄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험과 실력이 없는 제가 거대한 이 공동체를 이끄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생각도 하는 요즘입니다. 그 순간마다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부편집장님과 선배 기자들, 동기 기자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가까이 떠나고 주시고 끊임없이 조언해 주며 더 나은 신문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바쁜 텐데, 항상 축사에 응해주시는 중앙운영위원회 분들께도 감사 인사 전합니다. 저희의 신문을 읽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영균 주간 교수님, 신문사의 모든 일을 살펴봐 주시는 학생처 선생님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시는 덕분에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문 원고를 받고 편집해 주시는 실장님도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경대신문을 봐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는 모든 독자·학우에게 감사 인사 전합니다. 저희도 기대에 부응해 신속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발로 뛰며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신문의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편집장 김호성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70대 부편집장 미래융합학부 1 경영계열 25학번 김호성입니다. 축사에 앞서, 서경대 신문사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의 발달 속에서 신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신문의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경대신문은 이에 흔들리지 않고 학우분들에게 생생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발로 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71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편집장이라는 직책의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문사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도움 덕분에 이러한 무게를 점차 견뎌내고 있습니다.

또한, 서경대신문은 학생 기자들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간 교수님과 학생처 선생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71주년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신문의 진정한 주인공은 본교 학우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내 언론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신문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발로 뛰는 지성 언론'이라는 슬로건에 부끄럽지 않도록 생생한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부장 김나연



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68기 보도부장 아동학과 22학번 김나연입니다. 서경대 신문사의 창간 71주년과 더불어 6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수습기자로 적은 첫 축사가 창간 축사였는데, 벌써 마지막으로 적은 창간 축사라니 마음이 복잡합니다.

지난해 70주년을 맞아 발행했던 창간 기념호에는 그에 걸맞은 기사를 담지 못한 것 같아 지금도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71주년'과 '600호'라는 또 한 번의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동안 술한 글을 써왔지만 이번 축사는 유독 오래 걸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지면에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기도 했으나 무엇보다 기자로서 적은 마지막 창간 축사다 보니 단어 하나하나를 계속 고르게 되더군요. 수습기자로 입사해 정기자, 부편집장과 편집장을 거쳐 지금의 부장기자가 되기까지, 신문사는 제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과 글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말과 글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힘이 너무나 가볍게 취급되곤 합니다. 타인을 쉽게 헐뜯고, 가짜 소문을 퍼뜨리며, 혐오를 내뿜는 무책임한 말들이 범람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말과 글이 가진 연대의 힘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신문의 기사는 그 어떤 글보다 엄중하고 중요합니다. 자극적인 언어 속에서 중심을 잡고자 매 순간 엄청난 고뇌와 노력으로 기사를 작성해 왔습니다. 무분별한 말들이 쏟아지는 시대일수록 독자에게 닿는 우리의 글에는 더 깊은 사명감이 깃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선배님들이 그러하셨고 지금 우리 기자들이 그러하듯, 앞으로도 서경대신문이 펜 끝의 날카로움과 따뜻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기자 김경민



안녕하세요, 서경대신문 제68기 정기자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불어전공 23학번 김경민입니다.

우리 서경대신문이 창간 71주년과 600호 발행이라는 경이로운 순간을 맞았습니다. 서경대신문은 1955년 5월 23일 창간된 이후 71년 동안 학우들 곁에서 대학의 어제와 오늘을 기록해 왔습니다. 학교의 변화와 성장, 학우들의 기쁨과 고민, 그리고 서경대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해 왔습니다. 때로는 학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창이었고, 때로는 학생 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아고라였습니다.

오늘날 미디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활자 대신 사진과 숏폼 중심의 콘텐츠가 일상화된 시대 속에서 신문이라는 매체는 다소 느리고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교내의 소식을 전달하는 기타 플랫폼이 등장하며 대학신문이 가지는 무게 역시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그럼에도 서경대신문은 여전히 기사 한 편, 문장 한 줄에 사실과 책임을 담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발로 뛰며, 학우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치우침 없는 소식을 전하는 일이 대학신문의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신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한 시대와 공동체의 기억을 남기는 기록입니다. 지난 71년 동안 보내주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시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서경대신문은 앞으로도 우리 대학의 어제와 오늘을 기록해 나가며, 다가오는 내일을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자 유승윤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70기 정기자 미래융합학부1 경영계열 25학번 유승윤입니다. 먼저 서경대 신문사의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간이 71년은 변했는 시간인 71년 동안 서경대 신문사는 다양한 난관과 변화를 거쳐 현재까지도 독자 여러분께 우리대학과 세상의 소식을 전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경대 신문사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을 위해 존재했고, 미래에도 독자 여러분을 위해 존재할 것입니다.

시간은 손살같이 흘러 벌써 학기의 마지막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한 학기 동안 일어난 다양한 일들이 신문이라는 형태로 잘 다듬어져 전해졌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신입생 입학부터 대동제까지 교내의 다양한 소식을 적재적소에 전달하기 위해 서경대 신문사의 구성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학기에도 신문을 만드는 일은 언제나 보람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별해 가공하는 것이 조각을 세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많습니다. 신문사에서의 활동은 만족감과 보람감을 동시에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편집장님과 부편집장님, 보도부장님, 객원기자님과 기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열정적으로 신문사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경대 신문사는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언제나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 신문사의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수습기자 김서연



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70기 수습기자 미래융합학부2 경찰행정전공 25학번 김서연입니다. 우선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금까지 책임과 사명을 지켜온 서경대신문의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경대 신문사의 일원으로서 이 뜻깊은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영광입니다.

서경대신문은 71년간 유일한 학내 소식지로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캠퍼스의 변화를 증언하며 대학의 기억을 쌓아 왔습니다. 교내 신문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고민과 수정을 거쳐 한 편의 기사를 완성해 온 기자들의 열정과 동시에 신문을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며 찾아주시 독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 좋은 기사를 쓰고 싶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문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0월, 제가 쓴 기사가 발행됐을 때 느낀 뿌듯함은 지금도 매 신문이 발간될 때마다 떠오르는 합니다. 이 기억을 잊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며 더 좋은 신문으로 독자 여러분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서경대 신문사의 일원으로서 늘 성실하게 제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발로 뛰는 지성 언론'이라는 구호 아래 변함없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서경대 신문사의 역사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신문의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자 이요한



안녕하십니까, 서경대 신문사 제70기 수습기자 미래융합학부2 도시계획공학전공 25학번 이요한입니다. 서경대 신문사의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경대 신문사는 1955년 5월 23일 국제대 학보사로 시작해 발행 정지 등 각종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명맥을 이어 독자분들에게 교내 소식을 전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발로 뛰는 지성언론'을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신문사 보도사진전을 준비하면서 선배 기자님들이 작성하신 수많은 노트와 사진 등 각종 자료를 봤습니다. 이러한 흔적에서 교내 소식을 전하기 위한 노력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모습을 본받아 열심히 활동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비록 어설픈 지이지만 함께 회의와 취재를 하고, 기사 작성 시 피드백을 해주시는 편집장님과 부편집장님, 보도부장님, 객원기자, 기자분들 덕분에 성장하며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재 시 인터뷰와 촬영에 흔쾌히 응해주셨던 분들과 작성한 기사를 관심 있게 봐주시는 독자 여러분 덕분에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7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학우들의 목소리를 전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교내언론의 역할을 굳건하게 유지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 신문사 창간 71주년을 축하하며, 서경대신문의 수습기자로써 책임을 다해 독자분들에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자 박희린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71기 수습기자 미래융합학부1 26학번 박희린입니다.

먼저 서경대신문의 창간 71주년을 축하합니다. 71주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학보사로 시작해 서경대신문이 되기까지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발로 뛰는 지성 언론이라는 말처럼 서경대신문 기자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독자님들이 계속 신문을 읽어와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습 부원으로서 선배님들의 회의하는 모습이나 나누어주시는 자료를 볼 때마다 매달 나오는 신문 한 부를 위해 다들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기자님들 한 명 한 명의 노력이 71년 동안 명맥이 이어질 수 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 신문사의 슬로건인 발로 뛰는 지성 언론이란 말이 뭘지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자라도 더 고민하면서 독자님들에게 더 흥미롭고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고민하며 적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선배 기자님들에게 잘 배워서 학우분들이 즐겁게 읽으실 좋은 기사를 많이 작성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종이신문보다는 SNS로 소식을 접하기 더 쉬운 시대이지만 믿음직한 정보를 전달하는 신문도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신문사가 71주년 그 이상으로 오랫동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 신문사 71주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학우분들에게 다양한 기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습기자 손서연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71기 수습기자 미래융합학부1 파이낸스엔테크전공 25학번 손서연입니다.

가장 먼저, 서경대 신문사의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수습기자로써 이 뜻깊은 시간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고 영광일 따름입니다. 아직 신문사 일원이 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편집장님과 부편집장님, 기자님들께 많은 것을 배우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으로 신문사에 들어왔지만,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책임감, 그리고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회의에 참여하고 교육을 들으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배 기자님들께서 진지하게 기사에 임하시고, 작은 부분까지도 꼼꼼히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더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또한 7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학내의 다양한 이야기와 목소리를 기록하며 신문사의 자리를 지켜왔다는 사실에 큰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수습기자이지만, 앞으로 학교 안의 다양한 소식을 책임감 있게 전달하고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또 정확성과 진정성을 잃지 않는 기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 역시 서경대 신문사의 역사 속 한 페이지를 함께 써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 신문사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신문사의 더 큰 발전과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자 황세빈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71기 수습기자 미래융합학부1 경영계열 25학번 황세빈입니다.

먼저 서경대 신문사의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습기자로써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난 71년동안 대학 언론의 사명을 다하며 정직하고 날카로운 글을 써오신 선배님들을 존경합니다.

신문사에 발을 들이게 된 계기는 다소 가벼웠습니다. 그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글을 쓰고 여러 사람들을 취재해 보고 싶다는 마음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획부터 마감까지 한 호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밤낮없이 고민하고 회의하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습기자 교육을 받으며 '발로 뛰는 지성 언론'이라는 신문사의 구호를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단순한 사실의 나열을 넘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기사를 고민하고, 학우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인터뷰 질문 하나에도 신중을 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사 한 줄, 문장 한 줄에 담기는 무게감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대학 언론이 당면한 위기 속에서도 서경대신문이 굳건히 지켜온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배우고 고쳐나갈 것이 더 많은 수습기자이지만,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내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발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신문사의 창간 7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선)가 막을 내렸다. 본지는 지선 전에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기사를 작성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해 발행이 늦춰졌다. (편집자주)



서울시장 후보에게 청년들이 묻다



▲ 정원오 후보 (출처: 정원오 선거캠프)

천만 서울의 미래가 그려질 도화지 위에 청년의 삶을 바꿀 두 행정 철학이 격돌한다. 깊어지는 주거난과 전세사기 불안, AI 시대의 급격한 변화, 길 위에서 버려지는 고단한 통근 시간까지 오늘날 청년 대학생들이 마주한 현실은 가법지 않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청년의 내일을 가를 중대한 선택의 장이다.

이번 선거에서 맞붙는 두 후보의 궤적은 서울의 미래를 바라보는 대조적인 두 가지 시선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12년간 성동구청장으로서 '생활밀착형 실용행정'을 실천한 현장 전문가다. 필수노동자 조례 제정 등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이끈 바 있다. 그는 시정을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실력 행정'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다.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4선 시장의 관록과 시정 연속성을 무기로 삼는다. 신속통합기획, 기후동행카드 등 대표 브랜드를 안착시키며 경쟁력을 다졌다. 그는 지금이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할 갈림길이라며 중단 없는 변화를 통해 '삶의 질 특별시'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서경대신문은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와 공동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대학생의 일상과 직결된 △출마 각오 △주거 안정 △일자리 · 창업 △도시정비 · 교통 △복지 · 안전 · 소통 철학을 중심으로 두 후보의 약속과 세부 실행 체계를 날카롭게 비교해 본다.



▲ 오세훈 후보 (출처: 오세훈 선거캠프)

A 정원오 후보

저는 성동구청장으로 12년간 일하면서 행정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굳건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이 해결되고, 그들이 바라던 바가 정책이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실현되는 순간 이야말로 행정가로서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제 성동에서 검증된 효능감 높은 실용 행정을 서울 전역으로 넓히고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서울시정은 시장 개인의 치적 쌓기와 보여주기식 대형 사업에 가려져 정작 시민의 삶을 소홀히 한 '시장이 주인인 서울'이었습니다. 저는 주거, 교통, 민생 등 시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일상 속 문제들을 착착 풀어내어 시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일 잘하는 행정가로서 확실한 '지방정부 실력 교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Q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와 임하는 각오를 밝힌다면.

지난 임기 동안 멈춰 있던 서울 재개발 · 재건축의 심장을 다시 뛰게했고 기후동행카드, 서울런, 한강버스 등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변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울은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으며, 앞으로의 4년은 서울의 미래 체급 자체를 바꿀 결정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의 5선 도전은 단순히 자리를 지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혁신적 변화를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확실한 열매로 맺기 위한 '책임의 도전'입니다. 외형만 큰 도시가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완성하겠습니다.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서울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A 오세훈 후보

청년 주거 불안의 근본 원인은 지난 몇 년간 오세훈 시장하에서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급감한 데 있습니다. 말만 화려한 신통기획은 정비구역 지정에만 몰두해 착공 등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임기 내 청년 특화 주택 5만 호를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 기숙사 수용률 20% 달성을 목표로 기숙사 7천 호를 공급하고, 성동구의 모범 모델인 '상생 학사'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해 2만 호를 확충하겠습니다. 원룸 수리비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동결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SH공사의 공무 기능을 정상화해 공공임대주택 2만 3천 호를 신속 공급하겠습니다. 당장의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2만 명 수준인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10만 명으로 대폭 넓혀 매월 2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은 자치구와 협력해 선순위 임차보증금 설정과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 청년 세대가 마주한 원룸 및 오피스텔의 높은 임대료 문제, 전세사기 불안 등 주거 고통을 해결할 실질적 방안은 무엇인가.

청년 주거 문제는 단순한 주택 시장의 수급 논리가 아니라 청년들의 출발선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입니다. 대학 입학부터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를 거쳐 내 집 마련에 이르는 촘촘한 '청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대학생과 초년생을 위해 임대료 부담이 적은 '서울형 사색 원룸' 1만 실을 도입하고, 대학 신입생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겠습니다. 공유 주택 6천 호와 기숙사 1만 1천 실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 청년에게는 시세의 10~30% 수준으로 거주 가능한 '디딤돌 청년주택' 2천 호를 제공하고,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연계해 목돈 마련을 돕겠습니다. 임대료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동결하는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와 수리비를 보조하는 '청년 동행 임대인'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위험을 사전에 진단해 주는 '위험 제로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코리빙하우스는 보증금 100% 보장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개발이민 환수 재원을 청년 자산 형성에 투입하는 '부모 찬스가 아닌 서울 찬스'를 제공해 내 집 마련을 실현하겠습니다.

창업만을 일자리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더 큰 그림에서 서울 전체의 경제 활력을 되살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우수 인재가 서울에서 정착해 성장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3도심 체계를 신촌 · 홍대와 청량리 · 왕십리를 포함하는 '5도심 체계'로 전격 넓히겠습니다. 서북부는 신촌 · 홍대 · 상암 ~ 연신내 업무 축으로, 동북부는 청량리 · 왕십리 ~ 창동 · 상계 업무 축으로 연결하고, 홍릉(바이오), 양재(AI), 구로 · 가산(제조 혁신), 용산(글로벌 금융 · AI)을 '4대 특구'로 정밀 육성해 거대 일자리 벨트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창업은 이 흐름을 든든하게 받치는 보안 정책입니다. 신촌 · 청량리 · 관악에 3대 창업클러스터를 세우고, 창업 도전 캠퍼스에서 매년 1천 명의 창업자를 육성하겠습니다. 이들에게 월 100만 원의 창업 도전 수당과 최대 4천만 원의 첫출발 지원금을 지급하며, 1천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창업 과정의 성공과 실패 기록을 축적하는 '서울 창업 경험은행'을 세워 실패가 또 다른 도전의 사회적 자산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 대학생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 활성화를 지원할 구체적 전략은 무엇인가.

디지털 대전환기 청년 일자리의 해법은 급변하는 기업 채용 트렌드와 산업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민첩성에 있습니다. 단순 코딩 중심의 기존 교육 수준을 넘어선 혁신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기존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기업 수요 기반의 'AI 중심 취업사관학교 2.0'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빅테크 기업과 연계한 현장 맞춤형 교육을 고도화하고 창업 멘토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필수 인프라가 된 AI 기술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및 대학 등에 공공 AI 환경을 제공하고, 청년 50만 명에게 AI 이용권 및 라이선스를 무상 지원해 기술 활용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스펙 중심에서 실무 중심으로 채용 패러다임이 이동한 만큼, 대학 재학 단계부터 실질적 일 경험을 연계하는 '서울 영커리언스'를 도입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총 1만 번의 고품질 인턴십 및 실무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보장해 경력 단절과 무경력 악순환을 확실하게 끊어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신통기획은 기획과 구역 지정에만 치우쳐 실제 준공과 임주를 애타게 기다리는 조합원들의 괴로운 곳을 굽어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비되는 저의 '착각개발'은 법 개정을 통해 기본계획과 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사업 시행과 관리처분 계획을 한 번의 총회 및 인가로 끝내는 간소화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조합 부담을 가중시키는 표준 건축비 기준의 임대주택 매입 비용을 기본형 건축비의 80% 선으로 대폭 현실화하고, 500세대 미만 구역의 지구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즉각 이양하겠습니다. 교통 혼잡은 무작정 도로를 넓히거나 한강버스 같은 전차사업에 예산을 쏟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같은 시간대 물리는 통근 수요 분산입니다. 유연근무를 확산하고, 역사 유류 공간을 활용한 '내 집 앞 공공 공유 오피스'를 대대적으로 조성해 '30분 통근 도시'를 열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의 예산 낭비를 막고 혜택 범위를 일원화하기 위해 K-패스와 과감히 통합하고 경기, 인천, GTX 노선까지 제한 없이 넓히겠습니다.

지연되는 주택 정비사업을 촉진할 대책과 낱이 심각해지는 대중교통 혼잡도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교통 공약은 무엇인가.

정비사업의 핵심은 흔들리는 사업성을 보장하고 빠른 인허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과거 20년씩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신통기획을 통해 12년으로 대폭 단축한 성과를 기반으로, 이제는 실행력을 다한 '신통기획 2.0'의 압도적 완성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달성을 목표로 이주 · 착공 단계 구역을 '핵심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책임 관리해 3년 내 8만 5천 호를 착공시키겠습니다. 조합 설립부터 관리처분까지 온스톱으로 처리하는 '핵심 통합'과 AI 심의인 '신속 AI 기획'을 도입해 속도를 배가하겠습니다. 강북 ·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용도 상황과 사전 협상제 확대를 통해 규제 패러다임을 혁파하겠습니다.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면목선, 강북횡단선, 목동선 등 강북 소외 지역 중심의 도시철도 사업을 조기 완공하고,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CBTC)을 단계 도입해 혼잡도를 20%p 이상 즉시 경감하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K-패스의 혜택을 결합한 '서울 기후 동행 패스'로 대폭 업그레이드하고, GTX-A와 신분당선 서울 구간까지 이용 혜택을 전격 확장 적용하겠습니다. 대형 지하화 사업을 통해 지상 공간을 녹지로 메우는 '입체 도시 전략'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가 안전한 서울의 기본 바탕입니다. 성동구에서 증명한 필수 노동자 보호 정책을 시장 전반에 정착시키겠습니다. 고품질 시대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맞춰 현장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서울형 돌봄인 수당'을 즉시 지급하고, 취약 노동자를 위한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완비하겠습니다. 안전 행정은 사후 복구에서 '선제적 예방' 체계로 180도 전환해야 합니다. 취임 당일 제로 결재로 서울 전역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하 싱크홀과 노후 관로 차단을 위해 전체 도로 대상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전면 실시하고, 위험 지역을 공개하는 'AI 안전 지도'를 만들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예방 사업 투자 비중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연간 150km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해 침수 우려를 뿌리 뽑겠습니다. 문화는 일회성 조형물 축제를 탈피해야 합니다. 성수동 골목길처럼 시민의 자연스러운 일상과 지역 개성을 연결하는 'K-미식 로드' 등 생활 밀착형 문화 콘텐츠를 육성하고, 창동 · 상암 · 잠실에 K-아레나 클러스터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후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할 방안은 무엇인가. 아울러 일상과 조화를 이루는 문화 경쟁력 강화 대책도 답변한다면.

시장 최우선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은 일시적 시혜성 복지가 아닌 자립 기반 마련에 있습니다. 장애인에 의한 일자리를 대폭 창출하되, 디지털 행정과 AI 학습 데이터 구축, 공공 데이터 관리 등 미래 산업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집중 발굴하겠습니다. 야간 근로 가정을 위해서는 거점형 야간 보육시설과 긴급 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여성 등 1인 가구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주력하겠습니다. 스마트 보안등, 안심귀가 스카우트, 안심이 앱을 보완하고 데이터폭력, 스톱워,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밀착 보호하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작동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기 몰입으로 약해진 아이들을 위해 집 주변 '10분 운동권'을 실천하겠습니다. 학교가 안전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안전 매뉴얼과 공공 책임 보험 체계를 마련해 방과 후 운동장과 체육시설 개방을 파격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문화 정책에서는 BTS 광화문 공연, 도심 마라톤 같은 대규모 도시 행사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당겨 3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되, 교통 사전 우회 정보 안내 등 정교한 매뉴얼을 구축해 시민의 일상 편익과 균형을 도모하겠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듯이, 행정의 과제를 완수하려면 시민들의 구체적인 불편을 낱 그대로 알아야 합니다. 성동구청장 시절 제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전면 공개해 구민과 직접 문자로 머리를 맞대었던 이유도 소통의 구조가 곧 행정의 핵심 동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서울은 천만 명이라는 거대한 인구가 살아가는 거대 도시인 만큼, 성동구의 방식을 시스템적으로 확장 보완해야 합니다. 들어오는 방대한 소통 채널의 민원을 AI를 활용해 정교하게 요약하고 자동 분류하는 '스마트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주거, 교통, 생활 민원 등 반복적으로 수집되는 건의 사항들을 정책 수립 단계의 아이디어로 신속하게 자동 링크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리더십입니다. AI는 도구일 뿐, 책임 있게 응답하고 현상으로 향하는 시장의 자세가 우선돼야 합니다. 말하면 실제로 삶이 바뀌는 명확한 효능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천만 서울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경청하고 해결할 것인가. 자신만의 소통 철학과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면.

서울시장의 소통은 개인의 인기여 영합하는 일회성 이벤트를 뛰어넘어, 대립하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시민의 권익과 균형을 잡아내는 무거운 책임감의 리더십입니다. 갈등과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시민 개개인의 안전과 존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저의 일관된 시정 철학입니다. 대규모 축제나 도심 행사 개최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민들의 이동권 및 일상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행사 중심'이 아닌 '시민 공존형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 의견 수렴 체계를 대폭 강화해, 행사 개최 전 인근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소음, 쓰레기, 통행 문제 등에 대한 현장 대응을 더욱 정교하고 체계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화려한 소통에 그치지 않고 약속의 이행으로 보답하는 진정성 있는 행정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어디까지 알고 있니?

신문사 A to Z

'서경대 신문사'가 올해로 7주년과 600호 발행을 맞이했다. 우리대학은 재단이 여러 차례 바뀌고, 교정을 옮겨 다니는 등 많은 변화를 거듭했다. 그 속에서 서경대 신문사는 1955년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교내 언론의 역할을 하며, 우리대학의 소식을 교정 내외로 널리 알렸다.

하지만 발행 정지와 신문사의 계보가 중간에 끊기는 등, 순탄치 않은 시간을 보내왔다. 그만큼이나 서경대 신문사에 있어 '600호'란 의미는 억압과 해체라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결실이다.

미디어의 변화로 신문의 쇠퇴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신문의 기자들은 여전히 교내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기사를 작성한다. 이번 기획 면은 우리대학의 유일한 언론기관인 서경대 신문사의 역사와 신문을 제작하는 과정, 발행과 기자들이 알려주는 신문사 생활 등을 통해 신문사의 모든 것을 알리고자 한다.

7년간 600호의 신문을 거쳐오기까지 기사를 작성해 온 선대 기자들의 열정을 높이 사며, 오랜 시간 동안 서경대신문에 큰 관심을 보인 독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신문사의 7주년을 축하하며 신문사의 모든 것을 소개하겠다.

서경대 신문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며



71년간 학우들의 눈과 귀가 돼 준 서경대 신문사는 교내 유일의 언론 기관이다. 오랜 역사만큼 깊은 발자취를 자랑하는 서경대 신문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발로 뛰는 지성 언론'이라는 사명감을 잃지 않고 독자들과 소통한다.

서경대 신문사는 '국가와 민족의 요청에 순응하며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 학원의 평화와 대학문화 창달을 위한'이라는 목적 아래 '국제대 학보사'로 첫발을 내디뎠고, 시대의 흐름과 학내 환경 변화에 맞춰 변화해 왔다. 1999년 제343호 발행을 기점으로 기존 '서경대학보'에서 '서경대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사명 또한 지금의 이름으로 변했다.

서경대신문은 오랜 시간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학내 소식을 전달하며 그 역할을 다해 왔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레 지면 발행이 전면 중단되며 위기를 맞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종이신문에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PDF 발행을 시작하며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 현재는 월 1회, 연간 총 10호를 발행하며 독자들과 만나고 있다.

기자들은 하나의 완성도 높은 기사를 쓰기 위해 성장 과정을 거친다. 서경대 신문사의 임기는 최소 2학기며, 기자들은 △수습기자 △정기기자 △부장 △부편집장 △편집장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직급 조정을 거친다.

입사 후 수습기자로 1년간 활동한다. 신문사의 전반적인 운영 내용과 올바른 언론관, 유형별 기사 작성 방법을 교육받는다. 첫 호를 제외하고 매호 2~3개의 기사를 작성해 실전 역량을 다진다.

수습 기간이 끝나면 정기자로 활동한다. 신문의 중추적인 역할로 스토리텔링과 기사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동시에 수습기자의 학보사 적응을 돕고, 기사를 교열하는 사수 역할을 맡는다.

'데스크단' (편집장, 부편집장, 부장)은 신문사의 총체적인 방향과 책임, 기사화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의사결정 기구다. 부서 내 소통과 지면 편집의 마칩표를 찍는다. 편집장과 부편집장은 4학기까지 임기를 마친 기자 중에서 각 부서의 부장을 임명한다.

현재 서경대신문사는 보도부와 뉴미디어부를 중심으로 부서별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체계적인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다. 각 부서 간의 긴밀한 협의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면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대학 언론의 역량을 다각화하기 위해 조직 구조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뉴미디어부는 신문의 화보 촬영과 디지털 환경에 맞게 신문을 카드뉴스로 재가공한다. 서경대 신문사 공식 인스타그램에 공유함으로써 독자와 소통하고, 관심을 끌어낼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71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서경대신문은 이제 600호를 맞이했다. 미디어의 형태가 계속 바뀌어도, 진실한 내용을 전달하려는 기자들의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다. 오늘도 서경대 신문사 기자들은 발로 뛰며 취재한 현장에 깊이 있는 비평을 담아 기사를 써 내려가는 중이다.



△ 기자가 기사를 쓰며 교열하는 모습이다. △ 기자들이 설문조사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당신의 생각보다 다양한 기자들의 생활



서경대신문의 구성은 7면으로 △보도 △사회 △기획 △현장포로 △오피니언 △문화로 구성된다. 입학호, 창간호, 개고기번호는 측사를 포함해 9면으로 구성한다. 신문 발행을 위한 기자들의 일정은 3주일 단위로 운영된다. 회의인 작성부터 브리핑과 회의, 취재까지 우리 신문사 기자들이 어떻게 신문을 만드는지 소개한다.

기획 회의는 월초 화요일 6시에 진행된다. 기자들은 회의 전날까지 다음 호에 실을 아이디어를 각 면마다 구성해 편집장에게 제출한다. 회의는 이전 호 브리핑, 아이디어 회의, 기사배정 순으로 진행된다.

'브리핑'은 이전 호 신문을 보고 기자들이 느낀 점을 말하는 시간이다. 브리핑 양식에 따라 기사의 강점과 약점을 말하고, 신문을 총체적으로 평가한다. 기타 사항을 통해 신문사에 바라는 점이나 건의 사항을 말하기도 한다.

브리핑 이후에는 기자들이 가져온 주제를 서로 설명하는 아이디어 회의를 시작한다. 회의록에 나와 있는 주제들을 아이디어를 낸 기자가 읽고 설명한 후, 투표로 통해 각 면의 주제를 정한다. 또 꼭 들어갔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회의 중에 추가하기도 한다. 회의 주제를 정하는 회의인 만큼 기획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기획 회의에서 기사를 배정받으면 주제에 따라 인터뷰나 취재를 해야 할 일이 생긴다. 우리 신문사에서는 인터뷰를 서면보다는 우선, 우선보다는 대면으로 취재하고 있다. 인터뷰를 준비할 때 질문은 최대한 짧고 굵게 하고, 단순 배경이나 예·아니오로 끝날 질문은 지양한다. 자료 조사를 어느 정도 마친 후 질문하고 조사한 자료에서 확실하지 않은 정보 위주로 질문하는 방향으로 인터뷰하고 있다.

기자들은 기사를 작성하는 일 외에도, 각종 교내의 행사 취재와 부스 운영을 하기도 한다. 이번 축제 때 우리 신문사에서는 추억의 뽑기와 고화질 사진을 인화하는 부스를 운영했다. 기자들은 축제 전 회의를 통해 부스 체험거리와 상품을 정하고, 이후 부스 홍보 피켓을 제작해 부스 운영을 준비했다.

대중제 당일부터 카메라를 들고 스크린쿼어를 돌아다니며 축제를 즐기는 학우들과 다양한 부스를 취재한다. 오후에 공연 시작 시, 동아리 공연과 아티스트 무대까지 기자들이 직접 촬영한다. 이처럼 기자들은 신문 발행을 위한 기사 작성 말고도, 다양한 행사 취재와 부스 운영 그리고 보도사진전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신문은 어떻게 완성될까? - 조판부터 발행까지 여정



이러 조판과 발행 과정을 설명하겠다. 작성한 기사들은 '마감' 시간에 따라 신문사 소통 창구에 올려야 한다. 마감 시간은 '1·2차 마감'과 '수정 마감'으로 이뤄져 있다. 1·2차 마감은 둘째, 셋째 주 수요일이며, 1차 마감에서는 주로 본인이 기사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설명을 작성해 올린다. 이후 2차 마감은 작성한 기사를 제출한다. 기사 제출 후에는 넷째 주 목요일까지 수정과 피드백 과정을 거친다.

편집장과 부편집장, 부장, 팀 기사의 팀장이 기자들의 기사에 수정 방향을 제시한다. 주로 글의 분량과 표기 원칙, 부자연스러운 문장에 수정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신문사마다 지난 '스타일북'에 맞게끔 수정하도록 제시한다. 수정은 적어도 한 번, 많게는 그 이상으로 몇 번이고 진행된다. 그리고 본인이 작성한 기사가 어색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시가 없더라도 수정한다.

더 이상 수정 사항이 없다면 편집장의 지시에 따라 최종에 접어들며 수정은 마감된다. 이후에는 조판 과정을 진행한다. '조판'은 지면에 맞게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들을 신문에 배치하고, 사진의 크기부터 각 면에 틀 디자인을 추가하는 과정이다. 우리 신문사의 경우 온라인으로 조판소와 PDF 파일을 주고받으며 작업한다.

이렇게 조판된 신문은 편집장이 기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PDF 파일로 올린다. 이 과정에서는 모든 기자가 참여해 신문의 전반적인 배치와 내용의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크기는 기사 내용이 잘못 삽입됐거나, 기자들의 메일이 잘못 첨부되는 경우 등이 있다. 작게는 수정 이후에도 존재하는 기사의 맞춤법과 문장의 어색함 등의 오탈자를 찾아 수정하고, 틀의 디자인 요소 하나까지 검토한다.

기자들이 피드백한 내용을 반영해 조판을 수정한다. 편집장이 다시 PDF 파일을 올리면 기자들은 또다시 수정 사항을 찾는 과정을 거친다. 편집장이 정한 기간까지 수정 사항이 없다면 조판은 마무리된다.

이 과정이 끝나면 더 이상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사를 최대한 많이 읽어보고, 최대한 자세히 봐야 한다. 많은 기자가 참여해 수정을 거치지만 발행 이후에도 오탈자가 배치의 오류가 발견되곤 한다.

이후에는 편집장과 주간교수가 완성된 신문을 함께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는 주간교수가 기사를 검수하고, 주간교수의 피드백에 따라 수정을 거치면 마침내 신문은 서경대 홈페이지 신문사 코너와 인스타그램에 발행된다.

이러 조판과 발행 과정을 설명하겠다. 작성한 기사들은 '마감' 시간에 따라 신문사 소통 창구에 올려야 한다. 마감 시간은 '1·2차 마감'과 '수정 마감'으로 이뤄져 있다. 1·2차 마감은 둘째, 셋째 주 수요일이며, 1차 마감에서는 주로 본인이 기사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설명을 작성해 올린다. 이후 2차 마감은 작성한 기사를 제출한다. 기사 제출 후에는 넷째 주 목요일까지 수정과 피드백 과정을 거친다.

편집장과 부편집장, 부장, 팀 기사의 팀장이 기자들의 기사에 수정 방향을 제시한다. 주로 글의 분량과 표기 원칙, 부자연스러운 문장에 수정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신문사마다 지난 '스타일북'에 맞게끔 수정하도록 제시한다. 수정은 적어도 한 번, 많게는 그 이상으로 몇 번이고 진행된다. 그리고 본인이 작성한 기사가 어색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시가 없더라도 수정한다.

더 이상 수정 사항이 없다면 편집장의 지시에 따라 최종에 접어들며 수정은 마감된다. 이후에는 조판 과정을 진행한다. '조판'은 지면에 맞게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들을 신문에 배치하고, 사진의 크기부터 각 면에 틀 디자인을 추가하는 과정이다. 우리 신문사의 경우 온라인으로 조판소와 PDF 파일을 주고받으며 작업한다.

이렇게 조판된 신문은 편집장이 기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PDF 파일로 올린다. 이 과정에서는 모든 기자가 참여해 신문의 전반적인 배치와 내용의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크기는 기사 내용이 잘못 삽입됐거나, 기자들의 메일이 잘못 첨부되는 경우 등이 있다. 작게는 수정 이후에도 존재하는 기사의 맞춤법과 문장의 어색함 등의 오탈자를 찾아 수정하고, 틀의 디자인 요소 하나까지 검토한다.

기자들이 피드백한 내용을 반영해 조판을 수정한다. 편집장이 다시 PDF 파일을 올리면 기자들은 또다시 수정 사항을 찾는 과정을 거친다. 편집장이 정한 기간까지 수정 사항이 없다면 조판은 마무리된다.

이 과정이 끝나면 더 이상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사를 최대한 많이 읽어보고, 최대한 자세히 봐야 한다. 많은 기자가 참여해 수정을 거치지만 발행 이후에도 오탈자가 배치의 오류가 발견되곤 한다.

이후에는 편집장과 주간교수가 완성된 신문을 함께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는 주간교수가 기사를 검수하고, 주간교수의 피드백에 따라 수정을 거치면 마침내 신문은 서경대 홈페이지 신문사 코너와 인스타그램에 발행된다.

그럼에도 신문 "사랑"하는 이유



이번 기획 기사를 준비하며 4년간의 신문사 생활을 되돌아봤다. 학교도, 나이도, 성별도, 학교도 다 다르지만 '대학 언론'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만난 수많은 인연과 신문사 기자라 경험할 수 있었던 다양한 간담회와 행사 취재까지.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은 서경대 신문사 기자끼리 떠났던 해외 취재다.

학교의 지원 없이 오롯이 기자들의 힘으로 기획부터 실행까지 옮긴 취재라 더욱 기억에 남는다. 몽골의 밤하늘 아래 돛자리를 깔고 앉아 함께 별을 보며 기사를 어떻게 쓸지, 어떤 사진을 담아낼지 도란도란 얘기하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하다.

물론 늘 좋은 인연만 가득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사람 때문에 눈물 흘렸던 날도 많았지만 결국 다시 사람 덕분에 웃을 수 있었던, 끝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 캠퍼스 밖에서는 넓은 세상을 마주하고, 캠퍼스 안에서는 동료들과 밤을 지새우며 그렇게 펜 끝의 무게를 함께 견뎌왔다.

글을 쓰며 울고 웃었던 그 치열했던 밤들은 비단 필자만의 기억이 아닐 것이다. 노트 북 앞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던, 그리고 이어가고 있는 또 다른 전현직 서경대 신문 기자들을 만나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3년 차 김나연 전직 기자 작년 초 처음으로 당시 편집장님과 592호에 실을 1박2일 영월 취재를 갔다 왔다. 영월 지역 사람들이 영월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단종의 이야기를 널리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잘 느껴져 최대한 그 이야기를 잘 쓰고 싶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영월 단종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크게 흥행해 '영월 사람들은 지금 참 부럽다' 싶고, 영화 흥행 전에 영월의 진심을 먼저 느낄 수 있어서 소중했던 경험이였다.

또, 본인을 포함해 오직 세 명에서 신문을 발행해야 했던 때가 기억난다. 기사 하나를 쓰는데도 정성이 참 많이 들어간다. 10명 내외를 유지하던 신문사 인원이 3명으로 줄었으니 써야 하는 기사도,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았지만 결국엔 무사히 발행해 냈다. 그때의 우리가 없었더라면, 서경대신문이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없었을 테니까.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아닌가 싶다.

2년 차 전준혁 전직 기자 성향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 신문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교류할 수 있었던 경험들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진다. 또한 서로 성향이 다른 사람끼리 일을 하면서 겪는 마찰 덕분에 인간관계를 조율하는 방법들도 깨달았다.

단편적으로는 진심으로 서로의 글이 좋다고 해줄 때, 다 같이 학교 행사를 취재하려 갔을 때가 가장 마음에 남아 있는 순간들이다. 또, 같이 나오지 않는데 마감일이 다가올 때, 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마감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할 때, 기자끼리 소통이 나 공간이 부족해 당혹스러웠을 때 등도 기억에 남는다.

3년 차 김경민 현직 기자 580호에 실린 '채상병 사건' 기사를 쓰던 당시가 기억난다. 실시간으로 새로운 사실이 쏟아지는 대형 이슈였지만, 신문의 발행은 밀려만 갔다. 기사의 생명인 시의성을 맞추고자 상황이 바뀔 때마다 초고를 뒤엎고 다시 쓰는 '자체 업데이트 수정'만 무려 6번을 넘게 했다. 이때의 경험을 통해 실시간으로 변하는 사회적 이슈를 독자에게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신문사에 자체 홈페이지(웹진)가 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

2년 차 심희평 현직 기자 수습기자 시절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편을 채웠던 593호의 '캠퍼스 투어' 기사가 가장 기억난다. 가을빛 품은 캠퍼스, 건물에 스며들다'라는 주제에 맞게 각 기자가 캠퍼스에 방문해 취재하며 생생하게 내용을 전달한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 본인도 직접 경희대학교를 방문해 지인과 함께 캠퍼스를 누비며 취재와 동시에 추억을 쌓았지만, 기획했던 것을 전부 담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

편집장이 되고 나선 글을 쓰기보다 큰 그림을 보고 글을 편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가끔은 쓸 때가 그림기도 하다. 데스크단을 맡으니 기사 시절보다 훨씬 신경 쓸 것이 너무나 많아 한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나보다 먼저 이 과정을 수행한 선배가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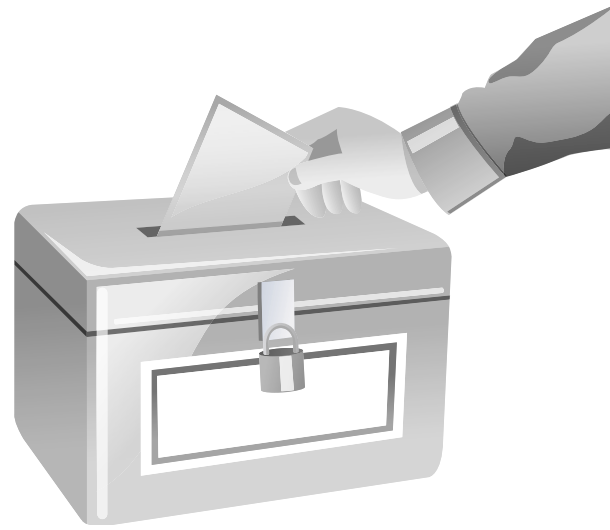
항상 함께해주고 같이 고생해 주는 기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계획 없이 급박하게 일을 처리해도 기꺼이 따라와 주는 것이 고맙다. 본인도 부족한 점을 계속해서 고쳐나가겠다.



△ 기자들이 화보 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수십 년의 역사 속에서 매 호 치열한 회의와 취재, 마감에 거쳐 지면을 꾸며 온 전현직 기자들의 진심은 언제나 단 하나의 사명을 가리고 있다. 무책임한 말들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도 서경대신문이 지켜온 펜 끝의 날카로움과 사명감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대학 청년과 선거, 멀어진 사이를 붙일 방법은



현대사회에서 청년층의 저조한 선거 참여율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다. 그만큼 한 표가 국가와 사회의 방향에 있어 의미하는 바가 크다.

국가의 향후 5년을 결정할 대통령 선거의 경우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보인다. 하지만 지방 선거와 대학 선거의 경우, 청년층을 비롯한 전반적인 참여율이 상당히 낮다.

일부 청년층은 선거날을 단순히 휴무일로 생각하고 투표하지

않는다. '나 한 명 투표하지 않아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뽑고 싶은 후보가 없다' 등의 이유로 선거 참여를 포기하기도 한다.

물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대표자는 존재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 표 행사로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의 선출은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릴 만큼 중요하다. 선거의 중요성은 국가뿐 아니라 대학 사회에서도 나타난다.

흔히 대학은 '작은 사회'로 불리며 학생들은 어엿한 성인으

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대학 선거에서는 단독 후보일 지라도 일정 투표율을 넘기지 못하면 개표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처럼 학생 사회를 이끌어줄 대표자가 선출되지 못한다면, 학생 사회 운영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 이럴 경우, 학생들은 이른바 '컨트롤 타워'가 없는 학교생활을 보내게 된다.

이번 현장르포에서는 사람들이 투표하지 않는 이유와 함께, 선거 참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지도자 없는 학생 사회... 텅 빈 선거운동본부와 연장 투표의 골레



학교는 제65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등록한 입후보자가 없어 무산됐다. 이어진 재선거에서도 같은 이유로 진행되지 못했다.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역시 2025년 제52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출마한 후보자가 없어 선거 자체가 무산됐고, 결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과거 대학가에서 선거철은 캠퍼스 전체가 활기로 가득 차는 축제와 같았다. 학생들의 공약 발표와 각양각색의 홍보물을 들고 다니는 선거 운동원들이 늘어선 풍경은 대학 자치의 상징과도 같았다. 그러나 현재 캠퍼스에서 이러한 풍경을 보기 어렵다. 매년 가을·봄마다 돌아오는 선거철은 조용히 지나가고, 학생 자치의 기본인 학생회 구성조차 힘든 상황이다.

대학 자치의 위기는 '후보자 부재'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소재 4년제 종합대학 33곳 중 2026학년도 총학생회를 정상적으로 출범시킨 곳은 단 19곳에 불과했다. 거의 절반에 달하는 대학이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

자체가 무산됐고, 결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후보자가 나와도 투표를 저조로 인해 성사되지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개표 가능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개표율 미달'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우리대학 역시 이 이유로 제54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투표 기간을 세 차례 연장해 개표를 성사한 바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42대 총학생회 선거의 경우는 단일 후보로 출마해 투표를 진행했으나, 마감일 전날 저녁까지 투표율이 22% 선에 그치며 최종 무산됐다.

이처럼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투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대학가에서 예외가 아닌 공식이 됐다. 2022년 서강대학교 보궐선거의 경우, 개표정착수

(33.3%)를 넘기기 위해 두 차례 연장했지만, 최종 투표율이 29.68%에 그쳐 불발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무리한 투표 연장은 선거의 연속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투표에 참여한 학생에게도 피로감을 느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결국 학생 사회의 차가운 침묵이 불려온 대가는 고스란히 자신의 몫으로 돌아온다. 총학생회 대신 들어선 비대위는 임시방편일 뿐, 대리인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들은 학교 본부를 상대로 힘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실제로 고려대 서울캠퍼스 등 비대위가 장기화한 대학들에서는 당장 등록금심의위원회처럼 중대 의사결정에서 힘을 잃는 뼈아픈 결과로 이어졌다.

진짜 본질은 우리가 스스로 투표라는 민주적 권리를 방치할 때, 학교 본부나 사회는 더 이상 학생을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는 단순히 대표자를 세우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유일한 방법이다. 착잡하게 내려앉은 캠퍼스의 정적 속에서 이제는 투표라는 행동을 할 때다.

2 청년을 비추는 조명, 닿지 않는 변화



▲ 출처 : 뉴스핌

선거철이 되면 정치권은 청년들의 마음을 사 오기 위해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앓다뚫는다. 하지만 이것에 비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치는 차갑기만 하다. 기성세대는 이를 두고 공동체 의식 결여라며 비판하지만, 청년들이 투표소와 멀어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현재 청년들은 삶의 무게에 지쳐있다. 취업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매달 내야 하는 자취방 월세나 높은 대학 등록금 부담은 일상이 됐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당장 내일의 스펙 쌓기와 생계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정치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며, 이로 인한 괴리감은 갈수록

고 주장했다. 이는 학생회에 대한 낮은 관심도와 학생들과 총학생회 간의 거리감을 보여준다.

정책 정보들이 지나치게 어렵고 접근성이 낮다는 것도 큰 문제다. 요즘 대학생들은 숏폼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쉽고 빠르게 소비하지만, 정당의 공약집은 수백 페이지짜리 딱딱한 행영 언어로 가득 차 있다. 해당 정책이 내 삶에 장학금을 얼마나 더 주는지, 월세를 얼마나 줄여주는지 쉽게 설명해 주는 소통 창구도 없다. 복잡한 정책 정보들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정치권의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청년들의 선거 소외는 취업과 주거 등 혹독한 현실과 정치의 괴리감, 그리고 청년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복잡한 정책 정보와 낮은 정치 접근성이 만들어낸 결과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투표를 의무로만 강요하기 전에 이들의 실생활에 와닿는 정책을 제시하고, 접근하기 쉬운 소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치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효능감을 주지 못한다면 청년들의 발걸음을 돌리기는 힘들 것이다.

실제로 2026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년들이 삶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가 국민 여러 계층 가운데 가장 낮은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청년 정책이 많지만 실제로 와닿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즉 정부 스스로도 정책 수와 체감도 사이의 괴리를 인정한 셈이다.

지난 본교 총학생회 선거 투표를 하지 않은 A(미용125)학우는 "투표해도 학교생활에 확실한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누가 당선되면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회가 정확히 무슨 활동을 하는지 체감하기 어렵다"

3 '투표'를 넘어, 청년 '정치참여'를 이끄는 디지털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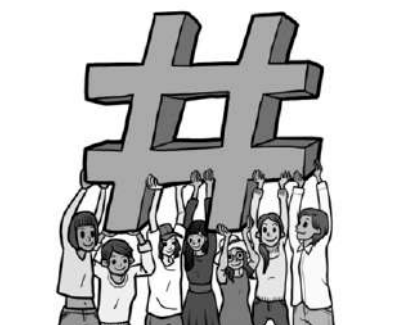


청년층의 정치 무관심과 낮은 투표 참여율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치참여의 방식은 디지털 환경을 중심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조선미디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응답자의 55.2%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주목할 점은 그 이유다. 응답자들은 "정치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서"(26%), "정치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없어서"(25.8%)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한국 사회 20대 청년층의 낮은 '정치효능감'을 보여준다.

정치효능감은 자신의 정치적 행동이 사회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정치효능감이 낮을수록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은 커지고, 선거 역시 '나와 상관없는 일'로 받아들이기 쉽다.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는 정치와의 거리감을 줄이는 방식으로 디지털 기반 정치참여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국회학회 송경태의 「디지털 기술과 청년 정치참여 : 참여하는 소셜 시터존의 등장」(2022)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 중심의 디지털 기술은 청년 세대의 새로운 정치참여 문화를 만들었



▲ 출처 : 여성신문

다. 과거 청년의 정치참여가 학교나 학생이라는 공론된 신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오늘날에는 특정 이슈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연결되는 '이슈 집단'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다. 당시 10·20대 여성이 주를 이루던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팬 사이트 '동네방네'에 한 이용자가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위험성 관련 글을 게시하면서 불씨가 지펴졌다. 이후 80만 명 규모의 팬 커뮤니티를 포함한 청년 집단의 참여가 이어지며 촛불집회는 지속적인 사회운동으로 발전했다.

정치참여 방식 역시 변화하고 있다.

과거 정치참여가 집회와 시위 같은 오프라인 중심의 무거운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해시태그 운동이나 밈(meme) 활용, 챌린지와 인증사진 공유처럼 소셜미디어 기반의 일상적인 참여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정치적 메시지를 쉽고 친숙하게 전달해 청년층의 참여 장벽을 낮춘다.

온라인 청원과 전자투표 역시 20대 정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대학 사회에서는 학생회 선거 등 학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바일 투표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줄여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지방자치단체 라인 청원 제도 또한 청년들이 사회 문제를 직접 공론화할 수 있는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디지털 정치참여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에서는 확산효과와 혐오 표현, 가짜 뉴스 확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잘못된 자극적인 콘텐츠들은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어렵게 만든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디지털 정치참여가 민주주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소통 구조 등 건강한 문화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4 하루의 참여가 몇 년의 미래를 바꾼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국가로서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한다. 대표자는 국민을 대신해 국가와 지역사회, 학생 사회 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한다. 또한, 민주주의의 국가 대부분이 국민이 대표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학 선거의 경우에는 총학생회를 비롯해 단과대학, 학과별 정·부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관리 하에 선거운동을 펼치고 유세를 진행한다.

대학 선거에서는 단독 후보라고 하더라도 투표율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개표가 성사되지 않는다. 이후 재선거가 진행되지만, 다시 무산될 경우 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의 형태로 운영된다.

비대위 체제에서는 단과대학 학생회 장단이 총학생회 업무까지 수행해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는 전문성과 역량 부족으로 대학본부와의 협상에서 학생 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드러난다.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총선과 지방 선거 역시 매우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듯이,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선거 참여는 필수다. 이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국가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수록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대표자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나 하나 참여하지 않아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은 투표율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대통령 선거보다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저조하다. 소규모 기초의원 선거 등을 예로 들면 불과 몇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돼 한 표 차이가 정말 한 곳 차이다. 그만큼 내 한 표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쿠팡의 사례를 들면, 이번 6.3 지방선거에 이례적으로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3일간 배송기사 1,800여 명의 휴무를 보장해 선



▲ 출처 : 세계일보

거 참여를 독려했다. 과거에는 단순히 홍보 전화를 돌리거나 거리에 나가 유세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해 MZ세대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등, 홍보 방법이 발전하고 있다.

한 표의 무게는 상당히 무겁지만 국민들은 그 무게를 짊어질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 선거는 단순히 한 표를 행사하는 행위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갈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참여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국민들의 참여로 완성된다. 하루의 짧은 시간 투표를 통해 앞으로의 몇 년을 더 나은 사회로 이끌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참여는 필수다.

대학가와 사회 전체에서 나타나는 청년층의 선거 소외는 단순한 기만이나 계층이 아니다. 취업과 주거 등 혹독한 현실과의 괴리감, 그리고 복잡한 정책 언어가 만든 결과물이다. 비록 투표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줄었을지라도, 온라인 청원이나 SNS 해시태그 등 자신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여전히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며 참여 대안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현실의 법이나 제도로 바뀌려면, 결국 선거라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이어 나가야 한다. 학생회장 선거부터 지방선거, 총선거 투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사회에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방법이다.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청년을 위한 국가 지원이나 정책을 요구할 권리를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다.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정치는 우리를 계속 외면할 것이다.

정치권과 학교 사회도 청년들 탓할 게 아니라 먼저 변화해야 한다. 예전처럼 벽보를 붙이거나 지루한 연설을 늘어놓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숏폼 영상을 활용하거나, 우리 삶에 바로 와닿는 공약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등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청년이 복잡한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줄 때, 정치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도 다시 생겨날 것이다.

정치는 우리의 먼 곳에 있는 관련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의 등록금과 자취방 월세를 결정하는 현실이다. 교내 선거든 국가 선거이든, 우리가 던지는 한 표는 청년 세대가 살아갈 내일을 바꾸는 출발점이다. 이제 냉소를 거두고 투표소로 향해야 한다. 우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청년을 외면해 온 정치를 우리를 위한 정치로 바꿀 수 있다.





대학신문 제600호, 대학생이 지녀야 할 비판적 사고

이복규 (문화콘텐츠학부 명예교수)

우리 서경대신문 제6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자축한다. 해방공간인 1947년 11월 창간호 이래 지금까지 연면히 이룩한 결실이다. 한 장의 신문이 나오기까지 쏟아 붓는 기자들의 열정과 고만이 쌓여 600이라는 숫자를 이루었다. 이는 단순히 종이 문지가 600번 전달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의 역사가 600번 기록되었고, 대학인의 지성이 600번 깨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손가락 하나로 세상의 모든 지식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역설적으로 '진실'을 가려 내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다. '정마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도 있지만, 이런 시대에 대학생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은 바로 '비판적 사고'다. 우리 대학신문 제600호를 맞이하여, 우리 대학 구성원이 갖춰야 할 비판적 지성의 본질에 대해 생

각해보고 싶다. 흔히 비판적 사고라고 하면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비난'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비판과 비난은 다르다. 비판(Criticism)의 어원은 '나누다', '분별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Krinain'에서 유래했다. 즉 비판적 사고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어떤 정보나 현상을 접했을 때 그것이 타당한지, 근거는 확실한지, 논리적 모순은 없는지를 스스로 따져보는 주체적인 과정이다. 대학은 정답을 외우는 곳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곳이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이 이론 뒤에 숨겨진 전제는 무엇인가?"를 묻는 것에서부터 지성의 성장은 시작된다. 왜 대학생에게 비판적 사고가 필요할까? 첫째, 알고리즘의 굴레에서 벗어

나기 위해 필요하다. 우리가 사용하는 SNS와 포털 사이트는 우리의 취향에 맞는 정보만을 제공한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면 생각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비판적 사고는 이러한 편향된 정보의 틀을 깨고, 보이지 않는 이면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된다. 둘째, 가짜 뉴스와 선동에 저항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요즘은 자극적인 제목과 교묘하게 편집된 정보들이 여론을 형성하는 시대다. 비판적 사고를 지닌 학생은 정보를 수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를 확인하고, 다른 관점의 자료를 비교하며, 논리적 비약을 찾아낸다. 이는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어 기제이기도 하다. 셋째, 자기 성찰의 도구로서 필요하다. 진정한 비판적 사고는 타인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야 한다. "내가 가진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내 주장이 감정에 치우쳐 있지 않은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하는 것은 자기 성찰이 뒷받침될 때 비판은 비로소 건강한 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경대신문은 지난 600호 동안 학내외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기록해 왔다. 때로는 대학 본부의 정책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때로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학내 여론의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 이 판적 사고를 지닌 학생은 정보를 수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를 확인하고, 다른 관점의 자료를 비교하며, 논리적 비약을 찾아낸다. 이는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어 기제이기도 하다. 셋째, 자기 성찰의 도구로서 필요하다. 진정한 비판적 사고는 타인

관점을 접하고 토론할 수 있는 '지적 광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쌓은 600호라는 금자탑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앞으로의 서경대신문도 진실과 진리를 향한 열정,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따뜻함, 그리고 현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비판적 사고는 피곤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내 생각의 주인이 되는 길이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다.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왜?"라는 의문을 던져보자. AI시대, 주체적 인 삶을 위해 필수적이다. 서경대신문 600호 발행을 다시 한 번 축하한다. 아울러 우리 신문이 앞으로도 우리 대학의 비판적 사고를 깨우는 맑은 종소리가 되어 주길 기대한다. 독자 모두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는, 살아있는 지성인이기를 당부한다.

| 기자의 눈 |

어린이날,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어른이었나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어린이들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선물을 받으며 행복한 하루를 보낸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이 어린이날을 단순한 공휴일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 단순히 쉬는 날로 생각하기보다 어린이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기까지의 역사적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올바르게 씩씩하게 자라도록 제정된 법정공휴일이다. 어린이날의 직접적인 시작에는 인권운동가 방정환 선생이 있다. 그는 일제강점기 당시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파악해 어린이 인권 운동에

앞장섰다. 1921년 3.1 운동에 참여한 소년들이 조직한 '천도교 소년회'가 시작한 어린이 운동 역시 어린이날 탄생의 배경이 됐다. 역사적 의견도 존재한다. 초기 어린이날은 '5월 1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노동절과 날짜가 겹쳐 행사 운영에 제약이 있었고, 1928년부터는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변경돼 1937년까지 이어졌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의 탄압은 소년단체와 어린이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어린이날 행사와 소년운동은 항일 운동의 성격에 띠게 됐다. 이에 일제는 소년단체 해산 명령을

내렸고, 해방 전까지 소년단체 활동과 어린이 운동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광복 이후, 순수 아동 잡지 『어린이』가 다시 발간되기 시작했다. 이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린이날은 부활했고, 5월 5일로 지정해 행사를 이어왔다. 1975년에는 공휴일로 지정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어린이날에는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며 어린이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어린이에게 이로운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실제로 어린이날을 맞아 매년 다양한 기관에서 어린이를 위한 행사를

는 서울디자인재단이 개최한 'DDP 어린이 디자인 페스티벌',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에 여소등이 진행돼 많은 어린이의 관심을 받았다. 이예명 대통령도 청와대 본관에서 어린이와 보호자 200여 명을 초청해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반면 어린이날에 열린 FC서울과 FC안양의 축구 경기에서는 어린이들이 보는 앞에서 어른들의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했다. 안양의 김강선수가 서울 서포터즈를 향한 도발적인 행위로 퇴장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어린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평소에도 어른들은 어린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어린이날에는 더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날, 우리 사회는 어린이들을 위한 따뜻한 행사와 동시에 어린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모습도 보여줬다. 이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어린이날을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어린이를 얼마나 존중하고 보호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김호성 기자 (hosung@skuniv.ac.kr)

| 기자의 눈 |

인간과 기술의 갈림길, 대체의 두려움을 딛고 공존을 위해 나아가길

요즘 들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 속도가 두려움을 넘어 경이로운 수준에 도달한 것 같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간단한 수준의 답변만 하던 AI였지만 이제 문장 몇 줄로 수준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생성형 AI로 발전했다. 또 이런 AI의 진화는 피지컬 AI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은 AI와 로봇이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보여준다. AI의 강력한 위력은 전쟁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장기화하고 있는 미국·이란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AI는 이미 무기로서 활용되고 있다. 미국 전정부는 실전에서 팔란티어와 앤트로픽의 AI를 운용해 복잡한 전장 상황을 초 단위로 분석해

타격 목표를 설정하고 제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판단을 맡은 AI는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히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판단을 내린다. 산업 현장의 풍경 역시 급변할 조짐을 보인다. 최근 현대차그룹이 투자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나 피겨 AI가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피지컬 AI들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피지컬 AI들은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인간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며 복잡한 조립 공정을 오차 없이 수행한다. 인간의 신체로는 불가능한 육체노동을 대신해 준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수많은 노동자의 일자리가 대체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또 주목할 점은 피지컬 AI들은 우

리가 보고 있는 지금이 그들의 초기 형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기술을 AI는 며칠 심지어 몇 시간 만에 익힐 수 있다. 미래에는 비용과 편의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경제적인 면에서 피지컬 AI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사무직이라고 해서 AI가 일으킨 물결에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고도화된 생성형 AI는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코딩 등 인간의 지적 노동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인간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며 복잡한 조립 공정을 오차 없이 수행한다. 인간의 신체로는 불가능한 육체노동을 대신해 준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수많은 노동자의 일자리가 대체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또 주목할 점은 피지컬 AI들은 우

발생 속도를 인간의 힘으로 멈출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개인적으로는 막을 수 없는 기술 발전에 대한 맹목적인 두려움이나 거부가 아니라 강력한 기술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대비가 필요한 것 같다. 과거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피지컬 AI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을 화낸 생성형 AI는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코딩 등 인간의 지적 노동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인간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며 복잡한 조립 공정을 오차 없이 수행한다. 인간의 신체로는 불가능한 육체노동을 대신해 준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수많은 노동자의 일자리가 대체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또 주목할 점은 피지컬 AI들은 우

리직 지침 제정 같은 것이다. 지금의 국제기구가 과거와 같이 그 힘을 원활히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이 명백하지만 지구의 지배종이라는 지위가 위협받는 순간에는 전 세계가 힘을 이룰 것이다. 또 명확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인간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대비책은 결국 사생활인 인간의 선택에 따라 유명무실한 규칙이 되거나 명실상부한 약속이 된다. 즉 AI가 인간의 도구를 넘어 동료가 되는 미래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와 철학에 달려 있을 것 같다. AI와 인간의 균형점에서 모두가 조화로운 사회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유승윤 기자 (organicggfry@skuniv.ac.kr)

만/파/식/적

나에게 기억이란

학창 시절 친구의 작은 실수를 가지고 장난을 쳐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놀리는 이에게 그저 유쾌한 추억일 뿐이지만, 당사자에게도 과연 웃으며 넘길 수 있는 기억이었을까. 기억은 언제나 이처럼 이기적이고 주관적이다. 같은 시공간을 공유했어도 누구에게는 아름다운 동화로 남지만, 다른 이에게 평생 지우고 싶은 상처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시선으로만 과거를 제멋대로 재단하고 편집하는 오류를 범하곤 한다. 영화 〈애프터션〉은 어른이 된 딸 소피가 아빠와 함께했던 마지막 여행을 회상하는 이야기다. 영화는 주관적인 기억이 가진 불완전함과 그 이면에 가려진 진실의 틈새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우리가 과거를 되짚을 때 흔히 사실 위에 자신의 감정과 주관을 덧칠하곤 한다. 소피 역시 어린 시절의 여행을 행복했던 순간으로만 기억했다. 자신의 기억 속 여행은 언제나 찬란하고 따뜻한 색깔로 가득했다. 하지만 현실의 아빠는 소피를 지극히 챙기는 와중에도 깊은 우울감 속에서 명상과 태극권에 매달리며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결국 아빠는 그 여행을 끝으로 세상을 등진다. 딸은 자신의 기억에 갇혀 부모의 고통을 온전히 보지 못했다. 철없는 자식의 시선과 부모가 홀로 감내해야 했던 차가운 현실 사이엔 이토록 거대한 괴리가 존재했던 것이다.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아빠와 소피가 퀸(Queen)의 〈Under pressure〉에 맞춰 춤을 추는 장면이다. 소피의 꿈속으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두 사람이 교감하는 유일한 순간이다. 어른이 된 소피가 아빠를 안아주지만, 아빠는 화려한 음악 뒤 어둠 속으로 추락한다. 곡 제목 그대로 삶의 무거운 압박과 책임을 홀로 짊어져야 했던 그의 슬픔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연출이다. 환희와 불안정이 위태롭게 교차하는 음악은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대변한다. 불완전한 기억의 틈새를 역지로 메울 필요는 없다. 파편은 시간이 흐를수록 왜곡되기 마련이지만 그 중심에 있는 감정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캠퍼스에서 마주하는 대학생들의 현실도 이 음악과 다르지 않다. 학업과 취업,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무거운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는 학우들은 저마다의 'Under pressure'를 겪고 있다. 그 숨 가쁜 과정에서 소중한 이들의 침묵이나 청춘의 소중한 기억을 너무 쉽게 잊고 지나치기도 한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옛이야기를 나눌 때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희미해진 기억을 서로 맞춰가며 과거를 재구성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지친 삶에 큰 위안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그 시절의 기억은 마치 다르게 읽히는 오래된 동화책처럼 다가온다. 철없던 시절에는 미처 몰랐던 부모님의 노고나 친구의 숨겨진 슬픔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서경대신문 역시 학우들의 오늘을 기록하는 공간이다. 우리는 오늘도 불확실한 기억의 동화 속에서 지나간 날들을 추억하고 기록하며 한 걸음 더 성장한다.

심화평 기자 (marksim@skuniv.ac.kr)

사설

캠퍼스에 퍼진 AI 맹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는 청년들

최근 대학 캠퍼스에서는 생성형 AI가 학습을 돕는 도구를 넘어, 사고를 대신하는 수단처럼 쓰이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자료조사부터 글쓰기, 아이디어 도출까지 무엇이든 질문을 던지면 곧장 답을 내주는 AI는 과제를 빠르게 끝내주는 좋은 해결책처럼 보인다. 하지만 질문에 대해 고민하고 답을 추론하는 사고 과정을 인공지능으로 축약해 넘기게 된다면 비판적 사고를 할 기회를 잃게 된다. 결국 우리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편리함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 생성형 AI를 향한 신뢰는 사회 분야 전반에 걸쳐 점차 커지고 있다. 서울의 모 대학 어느 비대면 수업에서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중간고사 도중 수강생 다수가 AI로 시험 답안을 작성한 사실이 발각돼 큰 파문이 일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에서 끝나지 않고 연구의 전문성과 윤리가 더욱 중요한 학회 안에서도 이어진다. 국제 과학 저널에서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문장을 검토 없이 게재했다가, 뒤늦게 사용이 발견돼 글이 철회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생성형 AI 이용이 의심돼 철회된 논문이 200건이 넘는대참고: 리트랙션 위치.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결국 학습을 돕는 도구를 넘어서 누구나 부정행위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유도하고 있다. 대학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공간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만들어가는 능력을 기르는 공간이다. 지금 대학에 필요한 것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사용금지라 아닌,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다. 편리함을 좇다가 사고력을 잃는다면,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은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순간 사회에서 뒤쳐질 것이다. 고등교육의 시작점인 대학은 더 깊이 질문하고 더 꼼꼼히 검증하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생성형 AI는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작업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 뛰어나다. 결국 새로운 질문을 하고, 기존 지식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그럼에도 인공지능이 작성한 문장을 검토 없이 그대로 쓰는 순간, 우리는 생각하는 법을 잊고 화면에 떠오르는 문장을 그대로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하게 될지도 모른다. 비판적 사고를 생성형 AI에 물어보기 전에, 생성형 AI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김서연 수습기자 (kimsey050317@skuniv.ac.kr)

| 수습의 눈 |

우리는 모두 노동자다

지난 4월 6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며 공휴일로 지정됐다. 일명 빨간날이라 불리는 공휴일 지정에 많은 이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반면, '노동절'로 변경된 것에 어색함과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노동'이란 단어의 부정적인 인식은 오늘날만의 일이 아니다. 경향신문은 2016년 서울시 강북구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노동하면 떠오르는 것'을 물었다. 110명의 초등학교생이 참여해 69명의 학생이 '노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생들은 노동에서 '노예'와 '천민'과 같은 육체노동

을 떠올렸다. 노동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육체적 노동만을 뜻하지 않는다. 육체적 노동의 인식은 왜 안 좋은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 사회에 내포된 '황금 티켓 증후군' 때문일 것이다. '황금 티켓 증후군'이란 찰리의 초콜릿 공장 동화 속 아이들이 초콜릿 공장에 방문할 수 있는 한정된 티켓을 가지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것을 사회에 비유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명문대학교 진학, 대기업 취업이라는 황금 티켓을 가지 있게

여겨, 육체적 노동을 등한시하는 시선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10년 전 얘기다. AI의 등장으로 MZ세대의 생각은 달라졌다. 선호도가 높은 화이트칼라 직업군이 AI로 대체될 위기에 처한다. 젊은이들은 육체적 노동이 필요하지만, 임금은 더 주고 AI가 대체할 수 없는 블루칼라 직업군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10년 전 육체적 노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던 것과 달리, AI란 변수로 상상이 180도 반전된 것이다. 인식의 변화와 함께 노동환경도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대표적으로 마트 계산대 의자 설치가 있다.

과거 마트 점원들은 의자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했다. 이런 노동환경은 다리 통증을 유발했고, 계산대에 의자를 배치해 노동 처우를 개선했다. 노동환경의 개선은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하기고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요구했기에 가능했다. 본격적인 노동운동의 시작에는 '전태일 열사'가 있다. 전태일은 평화시장에 있는 재봉 공장을 다니며 근로기준법을 공부했고, 노동 과정에서 부당함이 있다면 걸레달았다. 대통령에게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며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사회는 변화

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며 분신한다. 전태일의 이런 행보는 당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1970년 그가 분신하며 외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그 말은 2026년 현재의 노동환경을 관통하는 말이기도 하다. 과거에 비해 노동환경은 개선됐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확산과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이란 단어가 집중할 때가 아니라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관심이 필요할 때다.

이요한 수습기자 (yohan2006lee@skuniv.ac.kr)

오늘의 책

말기 암 환자의 마지막 기록지 - 새벽 4시, 살고 싶은 시간 - 신민경



▲ 출처 : 교보문고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막연하게만 생각하던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할 것인가? 『새벽 4시, 살고 싶은 시간』은 신민경 작가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 기록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작가는 무엇이든 열정적으로 해내던 사람이었다. 성적우수장학금, 각종 아르바이트, 해외봉사단 등 생의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하지만 자신을 돌볼 시간은 없었다. 몸의 이상 신호를 미루고 미루다 뒤늦게 병원을 갔지만 다발성 전이

의 말기 암 판정을 받는다.

새벽 4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시간이지만 누구에게는 형용할 수 없는 통증과 싸우고 있는 시간이다. 작가는 삶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고통을 겪는다. 똑바로 누워서 잠드는 것을 포기하고, 무릎을 꿇고 몸을 최대한 웅크린 자세로 엎드린다. 접힌 다리에서 쥐가 나면 또다시 다른 자세를 찾는다. 하지만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삼킨다. 변비, 구토증, 가려움증, 공황장애 증상 등 다양한 부작용도 견뎌야 한다.

그럼에도 작가는 암 말기의 원망, 좌절이 아니라 독자에게 사랑의 의미를 이야기한다. 묵묵히 옆자리를 지키는 부모님, 친구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사랑스러운 조카에게 무한한 응원을 보낸다. 또한 스스로 사랑받는 법을 깨닫고, 그것의 소중함을 독자에게도 전한다. 작가는 만났던 인연들과 추억을 회상하며 삶 속 소중한 순간들을 마음에 새긴다. 남동생에게 미안했던 일, 조카에게 별명을 지어줬던 기억, 봉사단에서 만난 친구 선이와 병실을 탈출해 막걸리와 파전을 먹었던 일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작가는 이제 미래만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다. 아픈 몸으로 하루를 버려

내며 비로소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남들의 시선과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이던 삶 대신, 이제는 스스로를 아끼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사고 싶었던 것을 사며 현재의 행복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러한 깨달음을 너무 늦게 알게 된 것이 아쉽다고 말한다.

작가는 이 책을 읽으며 시한부 선고에 대한 절망보다 삶의 감사함을 더 크게 느꼈다. 하루라도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싶다. 당연하게만 느꼈던 오늘의 아침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진다.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하루를 비추는 빛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까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적지만 나눌 게 있는 삶이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던지는 모르겠으나, 몇몇 사람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니 꽤 괜찮은 삶이었다. 고통 속에 무릎 꿇고 엎드려 쓴 글들이 내가 세상에 진 빚을 갚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한다.”

손서연 수습기자

(seoyeon802@skuniv.ac.kr)

오늘의 장소

독서를 넘어선 공간 -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



▲ 출처 : 영등포문화재단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은 4월 28일에 정식개관한 서울의 새로운 구립 도서관이다. 여의도 브라이튼 아파트 지하 1층에 자리 잡은 이 도서관은 전용면적 3,488㎡(약 1,055평)으로, 여의도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1971년, 여의도가 조성된 이후 55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대규모 공공 문화 시설이다.

도서관의 주요 공간으로는 △일반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영어자료실 △영어 키즈카페 △커뮤니티 홀 등이 있다. 간단한

전시나 책 컬렉션, OTT 전용 노트북 대여, LP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도서관 내부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도심 속 숲'을 연상케 하는 조경 설계로 이용객들이 휴식과 독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기자는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도 흥미롭지만 그중 인테리어가 가장 돋보인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공 도서관의 인테리어가 아니라 분위기가 카페나 가구 편집점 같은 느낌이 새로웠다. 신경 써서 배치한 조명, 소품, 가구에서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안목을 만족시킬 것 같다. 또, 심심분류법으로 빼곡하게 채워진 책장

이 아니라 도서관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도서관이 지루한 공간이 아니라 트렌디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 같다.

공간들에 관해 이야기하면 새로 지어졌을 자리도 많고 쾌적하다.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공부나 개인작업을 할 장소를 찾을 때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 아직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이 많이 확률이 높을 시간이 지나서 열기가 잠잠해질 때쯤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은 대중교통으로 접근성도 매우 좋은 편이다. 5호선을 타고 여의나루역에서 7분정도 걸으면 된다. 평소 예쁜 공간을 구경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면 한 번쯤 방문해보길 추천한다.

박희린 수습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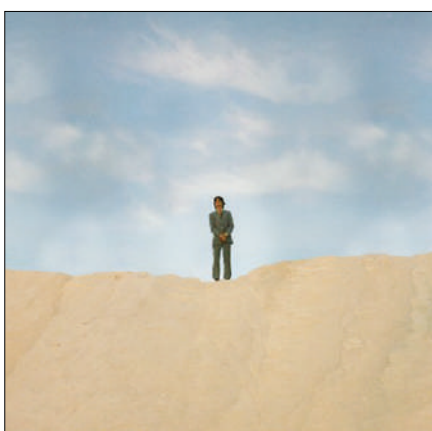
(pphrr0904@naver.com)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25
· 입 장 료 : 무료
· 운영시간 : 평일 09:00~22:00 주말 09:00~17:00 (월요일 정기휴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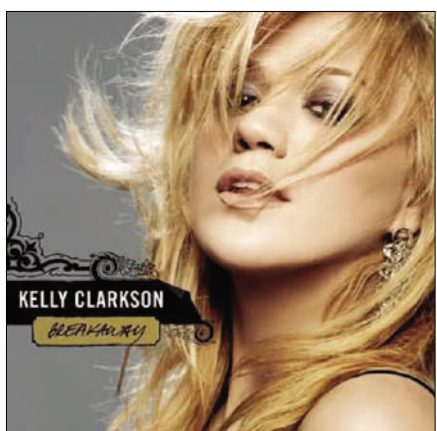
오늘의 음악

같은 제목, 다른 음악 - 당신 때문에, 당신 덕분에 살아지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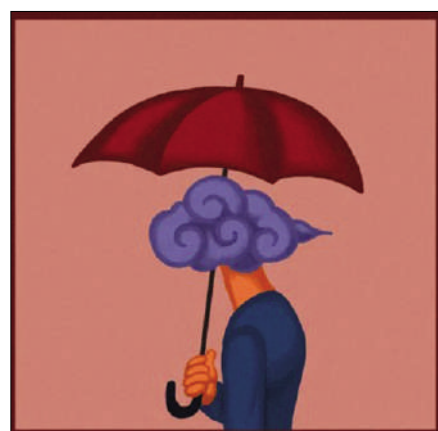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혹은 '당신 덕분에'로 해석되는 표현이다. 우리말로 옮기면 의미가 분명해지지만, 'because'라는 영어 단어에 담긴 감정은 모호하다. 그 뒤에 이어질 말이 무엇인지 더 궁금해지는 이유다. 여기, 같은 제목 아래 서로 다른 감정을 노래하는 세 곡이 있다. 때론 당신 때문에, 또 때론 당신 덕분에 달라지는 삶의 풍경을 따라가 보자.



▲ 출처 : 애플뮤직



▲ 출처 : 애플뮤직



▲ 출처 : 애플뮤직

♪ 〈Because of You〉 - Stephen Sanchez

♪ 〈Because of You〉 - Kelly Clarkson

♪ 〈Because of You〉 - 트리튬

“흑백뿐인 세상에
나는 색을 입혔고
난 비로소 사랑을 믿게 됐어
그런 다 너 덕분이야”

“당신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거리 두는 법을 익혔죠
바로 당신 때문에 난 누구도
내 마음속에 들일 수 없어요”

“가끔은 좋은 날에도 슬프긴 하지만
난 네가 곁에 있어서 그 모든 날이 좋았어
because of you 눈물이 나지만
because of you 행복할 수 있었어”

가수 스티븐 산체스는 국내에서 '미국의 전나비'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2002년생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옛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짙은 음색과 시적인 가사로 사랑을 노래하기 때문이다.

노래 사이사이 새어 나오는 숨소리와 떨리는 목소리는 마치 사랑에 빠진 한 사람의 조심스러운 고백처럼 들린다. 그 아래 잔잔히 흐르는 왈츠풍 피아노 선율은 소리 없이 내려앉은 첫눈을 떠올리게 한다.

언뜻 흔한 이별 노래 같지만, 사실 이 곡에는 청소년기에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았던 가수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녀의 노래는 개인의 아픔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이라는 존재가 한 사람의 삶에 남기는 깊은 흔적을 돌아보게 한다.

잔잔하게 시작한 멜로디는 후반부로 갈수록 현악기와 드럼 사운드가 더해지며 점차 깊어진다. 이어지는 켈리 클라크슨 특유의 폭발적인 보컬은 묵직한 울림을 남긴다.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오늘의 전시회

우리 그림의 결이 바뀐 순간 - 한국현대회화 하이라이트: 모더니즘과 도전



모더니즘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전개된 혁신적인 예술 사조로, 이성과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권위를 거부하고 자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한다.

한국의 모더니즘은 광복 이후 서구의 모더니즘을 직접적으로 접하면서 시작됐으며 이 시기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화제는 '추상'이었다. 그 파장은 해방 이후 현대화와 전통 사이에 놓인 한국 미술계에도 닿았고, 작가들이 자신만의 개성적인 화풍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번 전시는 추상미술의 선구자인 김환

기의 작품에서부터 시작한다. 김환기는 20세기 한국 미술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작가로, 일본 모더니즘의 선구자들에게 영향을 받아 추상미술에 입문해 한국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에 집중했다. 그는 한국을 표현하는 사물 중 '달항아리'에 대한 애정을 담은 다양한 작품을 그려냈으며 그의 대표작 〈내 가 살던 곳〉에서 이 모습이 잘 나타난다. 달항아리와 산, 섬을 섬세한 푸른색 배경 위에 강렬한 선으로 재구성해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이러한 추상미술은 광복 이후 사회가 점진 안정을 찾아가자 새로운 조형 세계를 모색하며 발전하기 시작했다. 정물이나 풍경 같은 기본적인 소재를 다루면서도 기법을 새롭게 탐구하며 자기 수행적인 반복 행위를 그림 위 단색조의 질감으로 나타내는 단색화가 등장했다. 1970년대 등장한 단색화는 2010년대에 다시금 전성기를 맞았다.

단색화의 자기 수행적인 반복 행위가 잘 드러나는 작품은 한국의 3대 단색화가 정상화의 〈무제 90-5-20〉(1990)이다. 그의 작품은 단색조의 질감을 살리기 위해 고풍도와 점적제, 물감을 섞어 바른 캔버스 천

을 접어 균열을 만들고 매우는 작업을 반복한다. 작품을 직접 마주하면 캔버스에 쌓인 인고의 시간이 느껴진다.

본 전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은 하종현의 〈접합〉 시리즈(2019-2021)였다. 작가는 활동 초기에 구하기 힘든 캔버스 대신 거친 면의 마대를 선택했고, 그림 뒀면에 물감을 반복적으로 칠해 특별한 화면을 만드는 배압법(背押法)의 대표자가 됐다. 기자는 접합 시리즈의 작품 중 다홍색 물감을 사용한 〈접합 18-12〉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작품이 보여주는 강렬한 색감과 물감이 작가가 작품을 쓴 많은 시간과 손길을 떠올리게 한다.

한국 현대 회화의 흐름에서 '추상'을 구상하는 다양한 기법 시도와 변화는 현재의 추상미술이 보여주는 여러 작품 양상의 기반이다. 현대 회화가 어떻게 다가온다면, 이 전시를 통해 한국 추상미술의 일대기를 따라가며 작품을 느끼고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김서연 수습기자

(kimsy050317@skuniv.ac.kr)

- 전시기간 : 2026. 04. 21.(화) ~ 2026. 08. 01.(토)
· 전시장소 : 글로벌세아 아트스페이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25, 1층)
· 관람시간 : 화~토, 10:00~18:00 (매주 월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 관람비용 : 5,000원 (시간당 50명 한정)

오늘의 드라마

박해영 작가가 전하는 담백한 위로 -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2026)



▲ 출처 : JTBC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로 사람들을 담백하게 위로해준 박해영 작가의 신작,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전국 시청률 최저 2.1%, 최고 3.9%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다. 1, 2화에서는 황동만의 진상 캐릭터에 호불호가 갈렸지만 회자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넷플릭스 '오늘의 시리즈 순위' 1위를 달성 후 4위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작품은 20년째 영화감독 데뷔를 준비 중인 황동만과 영화사 기획과다 변은이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8인회'는 대학 시절 같은 꿈을 꿔던 20대 영화인들로 이뤄져 있다. 극 중 동만은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자신의 처지에 절망하며, 잘 나가는 동료들을 향한 시기과 질투에 시달린다. 박해영 작가는 이 인물들을 미화하지 않고 어두운 내면을 날카롭게 보여준다. 사람들은 동만을 보며 자신만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모두가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연대감을 느낀다.

기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난 7명의 친구들이 있다. 총 8명으로 8인회처럼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들은 아니지만 4년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은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각자 다른 분야, 다른 위치에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러한 생각 속에서 8인회 속 황동만이 되지 않을지 불안한 마음이 든다. 그러나 한편으론 흔들리는 동만의 결에서 묵묵히 중심을 잡아주는 변은이처럼, 나 역시 친구들의 불안을 단단하게 보듬어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누구나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며, 우리 모두는 자신만 아는 무가치함을 가지고 있다. 박해영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하루하루를 버려내는 그 자체로 찬란하게 빛난다고 말한다. 그러나 타인의 시선에 맞춰 나의 쓸모를 증명하기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을 살아보자. 매일 남모름 열등감과 치열하게 싸우며 묵묵히 하루를 버려내는 모든 이들에게 이 드라마를 권한다. 화려한 성적이 없더라도,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다.

황세민 수습기자

(hsb061207@gmail.com)

오늘의 스포츠

OB와 YB의 유쾌한 반란이 써 내려간 새로운 전설, 제타 디비전의 OWCS 코리아·아시아 스테이지 1

오버워치와 e스포츠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오버워치 챔피언스 시리즈(이하 OWCS)가 새로운 체제로 출범한 이후, 그 열기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지난 5월 3일과 5월 10일 국내외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2026 OWCS 코리아 스테이지 1과 아시아 스테이지 1이 치열한 접전 끝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기존 리그 체제에서 개방형 토너먼트 시스템으로 변모한 지 3년 차에 접어드는 이번 시즌은 이번에도 전 세계 게임 팬들에게 새로운 서사와 역동적인 명승부를 선사했다.

OWCS 코리아 스테이지 1은 명실상부한 제타 디비전(이하 제타)의 독주였다. 코리아 스테이지 최초로 전승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하며 4회 연속 우승 선수 또한 배출했다. 이들이 세운 전승 우승이라는 기록은 곱씹어봐도 정말 대단한 기록이다. 제타는 정규시즌을 8승 0패로 마무리하며 시드 결정전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선점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단 한 번도 지지 않으며 무패우승했다.

이들의 압도적 우승 배경에는 베테랑과 신인들의 시너지가 존재한다. 4명의 베테랑과 2명의 신인으로 구성된 제타는 시즌이 시작되기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먼저 오버워치 리그 2회 우승에 빛나는 메인킬러 'Viol2k' 박민기 선수는 압도적인 게임과 수많은 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승리할 길을 모색한다.

OWCS 코리아 4회 연속 우승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가지고 있는 팀의 서브킬러 'Shu' 김진서 선수 또한 특유의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과 관록으로 승부사 역할을



▲ 출처 : 제타 디비전 X

도맡았다. 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플렉스 달러 'Proper' 김동현 선수는 탁월한 에임을 이용한 피지컬과 두뇌를 활용한 뇌지컬을 모두 가진 선수로 종종 오버워치의 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Proper' 선수는 찰나의 순간에 승패를 가르는 최적의 방안을 찾고 미시적·거시적인 게임 운영을 모두 수행하는 최고 수준의 선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Bernar' 신세원 선수는 팀의 든든한 서브탱커로 항상 결승에 좌절하는 절망을 맛봤지만, 이번 스테이지에서 자신의 징크스를 깨고 성장했다. 이 네 선수는 팀의 베테랑으로서 2명의 신인 선수인 플렉스 달러 'Knife' 이선우 선수와 메인 탱커 'Mealgaru' 이정환 선수와 함께 노련함과 패기를 바탕으로 이번 대회를 지배했다. 그러나 OWCS 아시아 스테이지 1에서도

계속될 것만 같던 제타는 처음부터 위기를 맞이했다. 일본 1위 팀인 비렐과의 경기에서 1점 차로 간신히 승리한 것이다. 이후 크레이지라운을 2점 차로 압도하면서 다시 불안을 잠재우는 듯했으나 결승전에서 다시 만난 크레이지라운에게 처음 두 세트를 연속으로 내주면서 위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제타는 위기에서 위협만 마주하지 않고 역전의 기회를 잡았다. 'Proper' 선수와 'Shu'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게임을 주도했고 모든 팀원이 마지막까지 우승을 향한 열정을 불태웠다.

결국 제타는 크레이지라운과의 마지막 세트에서 크레이지라운에게 승리하며 팀 창단 첫 국제전 우승이라는 기록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써 내려갔다.

유승윤 기자

(organiceggfry@skuniv.ac.kr)

